

OSM

Orangeboard Stock Magazine

orangeboard.co.kr



©GettyImagesKorea

© 1912년 미국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 전기차 모델과 충전 스탠드, 운전자의 패션은 바뀌었지만 재충전 방식은 오늘날과 다를 바 없다.

최초로 시속 100km/h에 도달한 것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것도 전기차였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andcompany.com/>

Disclaimer

- 본 자료는 오렌지보드의 유료 구독자들에게만 제공합니다.
- 하기 자료는 편집인과 크레이터의 제공 자료로 구성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작성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콘텐츠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모든 콘텐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크리에이터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밝힙니다.
- ※ 매거진은 웹사이트의 일부 내용과 편집인의 추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 서비스는 orangeboard.co.kr에서 이용해 주십시오.

CONTENTS

CONTENTS.....	2
Revision History.....	3
Editor's Letter - 중소형주 반등이 나옴!.....	4
Market Watch - 준비합시다!.....	11
Summary	11
용자잔고율 - 용자잔고율 75.4%, 전월 말 대비 3.6%p 하락	12
Yield spread - 1.30%임. 전월 말보다 소폭 상승! 채권금리 하락!	17
KOSPI - P/E 19.2, P/B 0.93, 배당수익률 1.93%	19
글로벌 지수와 환율 - 12월 지수 상승, 원화 약세!	22
국내시장 상세 - 코스피 중소형주 시총상승 주도!	24
버핏지수 - 112.9%, 전월대비 1.7%p 상승!	26
그 외 시장관련 지표	29
훑어보기 - 시가배당 수익률 Top115 (DIV% 6.0% 이상)	30
Monitoring Portfolio	35
요약	35
대형주Top10 - 월간 수익률 2.1% (누적 13.4%)	36
글로벌지수 - 월간 수익률 3.8% (누적 6.9%)	38
산업ETF - 월간 수익률 2.9% (누적 8.3%)	39
Editor's Pick (첨부참조)	42
역량UP!!! (첨부참조)	42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들 돈 많이 버세요!!!	42

Revision History

발행일	Rev'	내용	비고
2023.12.22	R0	발행	

Editor's Letter - 중소형주 반등!

오렌지보드 매거진은 구독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드리기를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구독료가 조금이라도 덜 아까우셨으면 합니다.

구독자는 매거진을 통해

- 1) 오렌지보드와 크리에이터의 포트폴리오 운영 성과
- 2) Market Watch
- 3) 편집인의 선택한 좋은 보고서
- 4) 투자에 도움이 되는 글

등을 한 달에 두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편집인이 선택한 보고서는 최신보고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렌지보드에 소개된 보고서 중, 투자할 만한 종목을 선정하여 소개합니다. 1)편집인의 역량 부족으로 혹은 2)보고서만으로 투자아이디어 전달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 매거진에 게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반기 3개월간 지루하게 하락했지만, 2023년 11월, 12월 지수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12월은 중소형주들이 나름 선방한 듯 하여 기쁩니다. 독자님들께서도 지갑이 두둑해 지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편집인의 편지에서는 커버페이지와 관련 있는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Hankook&Company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기차 관련 자료입니다. 투자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 요약하여 드립니다. '신기술개발, 상업화, 부흥, 몰락, 재이슈'의 관점에서 자동차 산업만한 표본이 없는 듯 합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이런 역사를 알아두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기차의 역사, 그 기원부터 현재까지

[원문링크](#)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먼저 발명됐다. 19세기 초 전기마차에서 출발, 20세기 들어 반짝 인기를 얻은 뒤 오랜 암흑기를 거쳐 오늘날 모빌리티의 총아로 각광받기까지 전기차는 거의 200년에 걸쳐 수많은 이슈를 만들어냈다. '자동차의 오래된 미래' 전기차의 역사를 짚어본다.

년도	내용
1800	구리판(양극)과 아연판(음극) 사이에 소금물(전해질)에 적신 천이나 판지를 끼운 회로를 층층이 쌓아 지속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이탈리아의 알레산드로 볼타는 1800년 영국왕립학회에 실험 결과를 보고함.
1821	마이클 패러데이가 볼타전지Voltaic Pile와 자석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 즉 전기가 흐르는 도체의 회전 운동 효과를 실험으로 입증
1820s~1850s	초기 형태의 전기차가 도로에 등장하기 시작함 1828년 헝가리의 사제이자 물리학자인 아니오스 예들리크Ányos Jedlik는 초기형 전기모터를 발명해 소형 모형 자동차를 만들었음 1832년에서 1839년 사이에 스코틀랜드의 발명가 로버트 앤더슨Robert Anderson은 조잡하지만 전기로 구동되는 마차를 발명함 1835년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교의 시브란두스 스트라팅Sibrandus Stratingh 교수는 독일인 제작자 크리스토퍼 베커Christopher Becker와 함께 소형 모형 전기차를 만들었음 초기에 시도된 이러한 전기차들은 모두 재충전이 불가능한 1차전지로 구동됨 재충전할 수 있는 최초의 2차전지인 납산 배터리Lead-acid Battery는 1859년 프랑스의 가스통 플랑테Gaston Planté가 발명함
1881	프랑스의 발명가 귀스타브 트루베Gustave Trouvé가 세계 최초의 충전식 전기차를 만들어 사람을 태우고 파리 시내에서 주행 테스트에 성공
1884	영국의 에디슨이라 불리는 토마스 파커Thomas Parker가 전기차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전기차가 처음 등장. 양산형 4륜 전기차 개발
1887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오늘날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와 무관한 과학자, 발명가)가 현대적 교류전동기를 발명함. 편집인 주) 교류를 사용하면 전압을 높일 수 있어 직류보다 전기 공급 손실이 획기적으로 줄어듬.
1898	포르쉐 설립자 페르디난트 포르쉐Ferdinand Porsche가 자동차 제작에 참여. 마차에 전기모터를 장착한 형태로, 후륜구동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배터리 무게가 500kg였음. 최고 속도는 시속 35km, 한 번 충전으로 약 80km 이동가능.
1899	사상 처음으로 시속 100km의 벽을 돌파 벨기에의 드라이버 카뮈 제나치Camille Jenatzy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의 라 자메 콩탕트La Jamais Contente를 타고 최고 속도 105.88km/h에 도달
1900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쎬퍼 비부스Semper Vivus를 만들었음. 무거운 납산 배터리를 덜 싣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내연기관(휘발유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 얻은 전력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을 택했음.
1910s	전기차는 유럽과 미국에서 전성기를 맞았음. 미국에서는 20세기 들어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의 인기를 뛰어넘어 1.5배 이상 더 팔려나가며 황금기를 누렸음. 당시 석유 가격이 비쌌던 것도 전기차 인기에 한몫했음. 1910년대 초 미국에서는 300개 이상의 제조사가 전기차를 생산했음.

년도	내용
1920s	<p>내연기관차의 급격한 발달로 전기차는 몰락의 시기를 맞음.</p> <p>1908년 포드 모델 T가 획기적으로 낮은 가격에 출시함 1911년 찰스 케터링Charles F. Kettering이 불편하고 위험한 시동 크랭크를 대신하는 전기 시동 장치를 개발 1920년대 텍사스 유전 개발 덕분에 저렴하고 질 좋은 휘발유가 공급되는 등 세계적인 석유 산업의 부흥 또한 내연기관차의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였음.</p>
1940s~1950s	<p>제2차 세계대전 동안 휘발유 수급의 어려움으로 전기차라는 대안을 모색함.</p> <p>영국은 우유 배달차Milk Float를 전기차로 만들었다. 전쟁이 끝나고도 오래도록 영국은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보유·운영한 국가였는데, 그게 다 우유 배달용 전기 트럭이었음.</p> <p>프랑스를 점령한 나치가 군용 항공기 제조를 금지하자 브레게 항공은 공장과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함. 하지만 시중에서 휘발유 유통 또한 금지됐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Bréguet Electric Car를 만들었음.</p> <p>1947년 일본에서도 극심한 연료 부족을 배경으로 새로 설립된 도쿄 전기 자동차가 다마Tama라는 전기차를 생산함</p> <p>1959년 미국의 헤니 자동차는 프랑스 르노의 소형 차체를 바탕으로 만든 전기차 킬로와트Henney Kilowatt를 판매함</p>
1960s	<p>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생겨나기 시작함. 미국을 필두로 전기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p> <p>GM은 1964년 쉐보레 코베어 기반의 전기차 콘셉트 일렉트로베어Electrovair를 개발. 2년 후에는 최고 속도 128km까지 달릴 수 있는 일렉트로베어2와 수소 전기차FCEV 콘셉트 일렉트로밴Electrovan를 발표. 일렉트로밴은 전기차 기술의 진일보를 이룬 모델로 연료전지를 사용한 첫 사례로 꼽힘.</p>
1971	<p>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달에 간 우주인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월면차Lunar Roving Vehicle 개발 계획을 세움.</p> <p>GM은 보잉과 함께 4륜구동·4륜조향 전기차를 만들어 1971~1972년 아폴로 15·16·17호에 실어 보냄. 36V 은-아연 배터리로 구동하는 저출력 직류 모터(0.19kW)를 바꿔마다 장착한 루나 로버는 아폴로 우주인을 태우고 달 표면을 누빔.</p>
1970s	<p>1973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제4차 중동전쟁(욘키푸르 전쟁)의 여파로 제1차 석유파동 발발. 아랍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스라엘 지지국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결정함으로써 국제 유가가 폭등하며 석유 제품 공급이 대폭 줄어들음.</p> <p>1976년 미국 의회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구, 개발 및 시연법을 통과시켰고, 카터 행정부는 이때 창설된 에너지부DOE에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p>
1977	<p>GM은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배터리 규격, 모터 시스템, 나아가 전기차 구매 및 운행으로 달라지는 삶의 형태 등 다양한 조사를 진행함</p>
1990	<p>미국에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수정안이 통과됨.</p> <p>1992년에는 에너지 정책법이 통과되고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새로운</p>

년도	내용
	배기가스 배출 규정 시행 등으로 환경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1994	<p>메르세데스-벤츠가 처음으로 공공도로를 주행한 수소 전기차FCEV 콘셉트 네카NECAR(New Electric CAR)를 발표함.</p> <p>GM 일렉트로밴과 마찬가지로 처음엔 화물용 미니밴을 기반으로 제작했는데 1997년 네카 3부터는 해치백 승용차(A 클래스)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2002년까지 총 6가지 모델을 공개함.</p>
1996	<p>GM이 EV1을 출시함. EV1은 기존 자동차를 기반으로 개조하거나 콘셉트카로 개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양산을 목표로 설계한 순수 전기차임.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함.</p> <p>1999년 나온 2세대 모델은 2001년 생산이 중단됐고, 2003년에 박물관과 교육 기관에 전시된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전량 폐기됨.</p>
1997	<p>토요타 프리우스Prius 출시. 세계 최초로 대량생산한 하이브리드 전기차HEV임.</p> <p>2000년 글로벌 시장에도 선보이며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냄.</p> <p>휘발유 가격 상승과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프리우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됨.</p>
2008	<p>최초의 양산형 전기 스포츠카 테슬라 로드스터Roadster가 출시됨.</p> <p>로드스터가 1200대 이상 판매되면서 2003년 설립된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사로 이름을 알렸으며, 출시 직후 일론 머스크가 CEO로 취임함.</p>
2009	미쓰비시 아이미브i-MiEV 출시. 전기차로서 양산 및 판매 가능성을 확인한 최초의 모델. 최고 속도는 130km/h, 주행거리는 160km(당시 일본 기준)
2010s	<p>2010년대는 전기차의 두 번째 황금기의 서막으로, 거의 모든 양산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대거 선보이기 시작함</p> <p>2012년 테슬라는 첫 번째 세단 모델 S를 출시 2013년 BMW는 i3를 선보임 현대자동차는 2016년 아이오닉IONIQ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필두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모델을 차례로 선보임</p>
2014	최초의 순수 전기차로 경쟁하는 포뮬러 레이스로서 'ABB FIA 포뮬러 E 월드 챔피언십ABB FIA Formula E World Championship'이 출범
2017	전 세계 한 해 전기차 판매량이 100만 대를 돌파
2020	테슬라가 완성차 업계 최초로 순수 전기차 생산 100만 대 돌파
2020s	전기차 대전환 시대를 맞고 있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대전환기에 형광펜을 칠하였습니다. 초기 전기차 시대는 대략 20년 남짓이고, 미국에서만 300개 이상의 완성차 제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내연기관의 파도를 넘은 회사는 몇 개나 될런지, 생각해 봅니다. 300개 회사의 주주도 많았겠죠.

워런 버핏이 '2021년 주주총회' 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산업이 성장하더라도 승자를 맞추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버핏 클럽에서 캡쳤습니다. [원문링크](#)

이제 여러분이 미국의 모든 고속도로와 자동차 2억 9,000만 대를 대강 훑어보고 나서 1903년으로 돌아갔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지요. "아주 쉽네. 대체는 자동차야, 자동차." 당시 버크셔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직은 확인하지 맙시다. 그런데 버크셔의 자회사 중에는 오래전 프리츠커(Pritzker) 가족에게서 인수한 마몬(Marmon) 그룹이 있습니다. 프리츠커 가족은 수많은 기업을 인수해 마몬 그룹이라는 회사명을 붙였습니다. 제이(Jay)와 밥(Bob)이 회사명을 마몬으로 결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이들은 마몬 그룹을 보유했습니다. 1911년에는 이 회사의 자동차가 제1회 인디500(Indy 500: 인디애나폴리스 500마일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했습니다.

이 회사가 1911년 제1회 인디500에서 우승한 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회사는 백미러도 발명했습니다. 백미러가 사회에 크게 이바지했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디500 경기 중 조수석에 앉아 뒤를 돌아보며 경쟁자들의 추격 상황을 알려주던 사람은 멀미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미러를 발명한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은 자동차가 놀라운 상품이라고 판단했다고 가정합니다. 이후 인디500을 계기로 모든 자동차에 백미러가 장착되었고, 미국에 자동차 2억 9,000만 대가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동차회사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원래는 철자 M으로 시작하는 자동차회사를 슬라이드에 모두 열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철자 MA로 시작하는 회사로 한정했는데도 거의 40개였습니다. 우리 자회사 마몬 역시 1930년대에는 자동차회사로서 매우 특별한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장래가 매우 유망해서 자동차 사업에 진출한 회사가 2,000개 이상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에는 미국 자동차회사가 셋이었으며, 그중 둘이 파산했습니다. 그러므로 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단지 장래가 유망한 업종을 찾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한때 메이택(Maytag)도 자동차를 생산했고, 올스테이트(Allstate) 보험사와 듀폰(DuPont)도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심지어 네브래스카주에도 자동차회사가 있었습니다. 요즘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라면 누구나 시작하듯이 당시에도 모두가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공하는 자동차회사를 선택해서 돈을 번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헨리 포드는 포드자동차의 동업자 몇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인수

2023.05.08 워렌 버핏, Fortune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워렌 버핏, 어떤 자동차 업체도 시장지배적 위치 차지하지 못할 것

"5년, 10년 뒤 자동차 시장 모습은 모르겠다"

기사입력 2023.05.08 09:21 | 채수중 기자

가 가 <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39>

- 기사발췌 -

워렌 버핏(Warren Buffett) 버크셔 해서웨이 CEO는 6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전기 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하지만 어떤 자동차 제조업체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회의에서 "자동차 시장에 변화가 있겠지만, 시장을 지배적으로 차지한 사람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 전설과 그의 파트너인 찰리 멩거(Charlie Munger) 부회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EV와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멍거 부회장은 "전기 자동차는 크게 발전하고 있고, 그것은 매우 흥미롭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막대한 자본 비용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나는 막대한 자본 비용과 위험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산업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성공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큰 듯 합니다.

글을 옮기다 보니 썰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좋은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시장이 하락할 때도 냉정함을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며,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터린치 ‘월가의 영웅’에서.

사탕과 초콜릿이 보약보다 많이 팔립니다. 오렌지보드의 리포트서비스는 몸에 좋으나 쓴 보약같은 상품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달콤하지 않아도, 먹는데 조금 힘들어도, 수익에는 이런 서비스가 더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가 성과 내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편집장 임민규 드림

Market Watch - 준비합시다!

투자를 하더라도 시장을 전혀 안볼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지표를 통해 현재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늠해 봅니다.

금리 상승이 지속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기회비용밖에 없습니다 (기회비용도 싸지는 않음). 사실 행하지 않음에 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FOMO (Fear Of Missing out)보다 더 두려운 것은 돈을 잃는 것입니다.

제목의 준비는 투자실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의 의미입니다.

Summary

* 날짜는 지표마다 하루/이틀 차이가 날 수 있음.

날짜	코스피 (지수)	융자 비율	Yield Spread	KOSPI P/E	KOSPI P/B	KOSPI ROE	KOSPI 배당%	원/달러	원/엔	버핏지수
2008-10-31	1,113	46.9%	7.34%	8.8	0.9	10.5%	2.66%	1,282.5	13.0	52.1%
2011-10-31	1,909	53.8%	6.69%	11.4	1.2	10.9%	1.47%	1,111.9	14.2	86.3%
2020-03-31	1,755	51.0%	6.15%	14.7	0.7	4.8%	2.51%	1,218.3	11.3	72.1%
2020-08-31	2,326	56.3%	3.04%	26.7	1.0	3.6%	1.85%	1,187.9	11.2	98.9%
2020-12-31	2,873	54.5%	2.47%	29.5	1.2	3.9%	1.48%	1,084.5	10.5	122.5%
2021-01-29	2,976	57.9%	2.20%	30.6	1.2	3.9%	1.43%	1,117.6	10.7	125.0%
2021-12-30	2,978	60.8%	6.35%	12.7	1.1	9.0%	1.82%	1,188.0	10.3	130.2%
2022-12-30	2,236	76.2%	5.47%	10.8	0.84	7.8%	2.22%	1,260.9	9.6	97.3%
2023-03-31	2,477	76.5%	4.88%	12.0	0.93	7.8%	2.00%	1,306.1	9.8	109.6%
2023-06-29	2,550	81.8%	2.57%	15.6	0.93	6.0%	1.95%	1,321.5	9.1	112.7%
2023-08-30	2,561	82.4%	2.27%	15.7	0.94	6.0%	1.93%	1,323.7	9.1	114.4%
2023-09-26	2,465	80.3%	0.81%	18.5	0.89	4.8%	2.00%	1,354.5	9.1	108.3%
2023-10-26	2,311	81.3%	0.88%	17.3	0.84	4.8%	2.13%	1,345.6	9.02	101.6%
2023-11-07	2,444	79.2%	0.88%	18.3	0.89	4.9%	2.02%	1,305.0	8.68	108.0%
2023-11-28	2,522	79.0%	0.94%	19.0	0.92	4.8%	1.95%	1,287.3	8.73	111.2%
2023-12-14	2,544	75.4%	1.30%	19.2	0.93	4.9%	1.93%	1,288.7	9.08	112.9%

용자잔고율 - 용자잔고율 75.4%, 전월 말 대비 3.6%p 하락.

신용거래는 투자의 레버리지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레버리지가 손실에도 적용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투자자산이든 빛으로 산 물건은 매매 회전율이 높습니다. 신용잔고가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 투매가 발생할 수 있고 급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신용잔고가 작은 종목은 매물이 적다 로도 이해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용잔고는 매도 (5분) 대기 물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핫 머니입니다.

'빛이 늘어 난다' 라는 의미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높다는 의미이고, 시장은 투자자에게 이럴 때마다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난 정통 가치투자자야' 라고 자신하더라도 시장이 가격을 패대기 치면 건디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급락이 발생하기 전에는 축제 분위기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과열을 판단할 자신의 도구가 있으면, 대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월말에 지수 다음으로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탁잔고대비 용자잔고 의 비율입니다. 시장을 과열을 가늠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편집인이 제일 신뢰하는 단기과열 지표입니다. 빛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초조한 마음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1.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많고, 시장의 수준을 판단한다고 해서 다가올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듯 함.
2. 하지만, 살펴보고 가늠하는 것으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음.
3. 신용 팽창(빛)으로 인한 위기의 경우, 특정 지표를 살펴봄으로써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이는 역할은 할 수 있을 듯함. 예탁금 대비 용자잔고 비율임. (이마저도 쉽지는 않음. 축제에서 홀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함)
4. 용자가 빛이라면, 예탁금은 담보임. 빛이 많더라도 담보가 두둑하면 자산이 좀 하락해도 끄떡없음. 그래서 빛의 크기가 아니라 비율 '(신용거래용자 + 예탁증권담보용자)/예탁잔고' 로 봐야함.
산식) '용자잔고율 = (신용거래용자+예탁증권담보용자)/예탁잔고'
참고) [예탁금 대비 용자잔고 비율 \(2008년 부터~\)](#)
5. 과거 사례로 보면 50%~60% 정도가 바닥, 100% 근처일 때가 고점인 경우가 많았음.

6. 용자잔고는 금액보다 속도가 더 중요함. 천천히 움직일 때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속도가 느림. 기울기가 가팔라질 때를 조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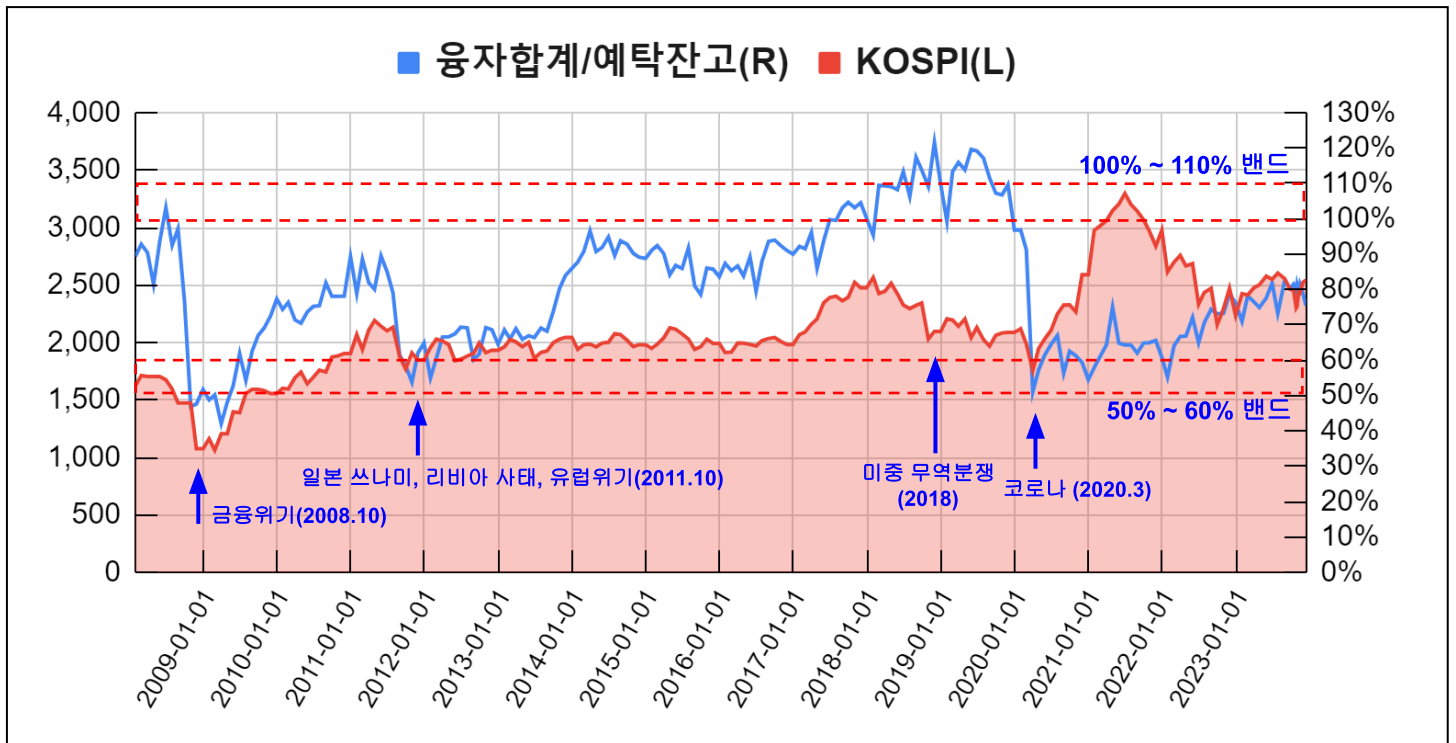
7. 과거의 경우, 용자잔고율이 꽤 상승한 상황에서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면 급락을 맞는 경우가 많았음.

- ▷ 23년 12월 14일: 용자잔고율이 소폭 감소했음. 75.4%임. 예탁금이 증가함.
- ▷ 23년 11월 07일: 용자잔고율이 소폭 줄어들었음. 79.2%임. 용자금이 줄고 있음.
- ▷ 23년 10월 30일: 용자잔고율이 소폭 줄어들었음. 지수하락으로 시가총액이 160조 가량 줄었음. 예탁금이 꽤 줄었음. 매물을 받아줄 돈이 부족해 진다는 의미임.
- ▷ 23년 9월: 예탁금 소폭 늘고, 용자합계 소폭 줄어 용자잔고율 소폭 하락함.
- ▷ 23년 8월
 - 8월 잔고율 상승은 예탁잔고 하락에 기인함. 7월 말 58조 → 8월 말 51조.
 - 잔고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음. 기울기는 가파르지 않음.
 - 잔고율은 높지는 않은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임.
 - 최근 3년 중 높은 구간임. 투자에서 조심해서 나쁠 건 기회비용밖에 없음.
- ▷ 2020년 3월 ~ 2021년 1월
 - 지수는 상승했지만 용자잔고율은 상승하지 않음.
 - 투자자들이 빛을 낼 만큼의 자신감은 부족한 시기인 듯함.
 - 용자잔고율 낮고 주가는 고점인 (이례적인) 시기임.
 - 빛이 늘어났지만, 투자자예탁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용자잔고율이 낮게 유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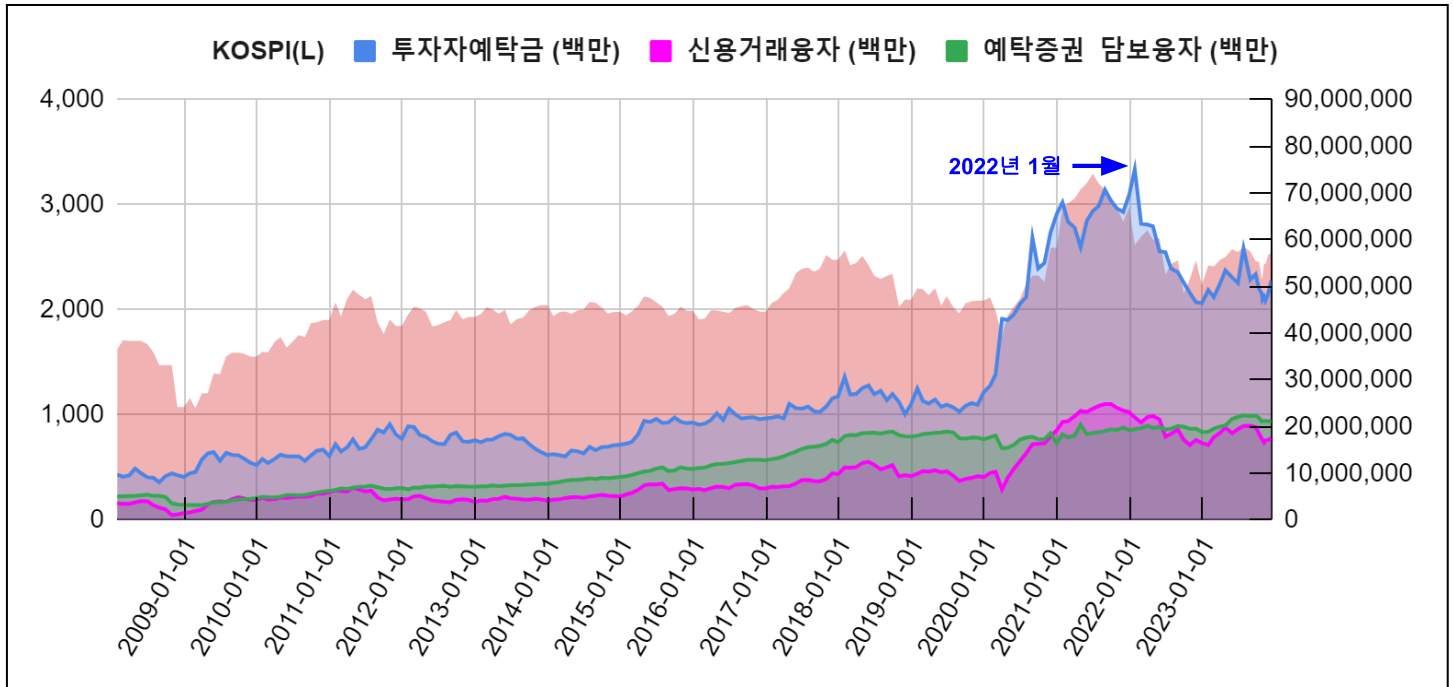
<예탁잔고 대비 신용융자 비율, 2008.1 ~ 2023. 12, 금액: 백만원>

[백만원,%]	KOSPI	투자자 예탁금	신용거래 융자	예탁증권 담보융자	융자합계	융자합계 /예탁잔고	시가총액 합계	예탁잔고 /시가총액
2008-10-31	1,113	10,026,310	1,085,845	3,613,393	4,699,238	46.9%	613,865,200	0.77%
2011-10-31	1,909	20,530,376	4,402,133	6,642,298	11,044,431	53.8%	1,183,798,400	0.93%
2020-03-31	1,755	43,082,921	6,578,263	15,406,579	21,984,842	51.0%	1,388,006,300	1.58%
2020-08-31	2,326	60,526,989	16,215,052	17,846,645	34,061,697	56.3%	1,903,527,000	1.79%
2020-12-31	2,591	65,522,730	19,221,357	16,501,299	35,722,656	54.5%	2,366,125,800	1.51%
2021-01-29	2,976	68,017,176	21,013,879	18,366,296	39,380,175	57.9%	2,424,994,300	1.62%
2021-12-30	2,978	69,653,452	23,097,232	19,236,990	42,334,222	60.8%	2,649,663,500	1.60%
2022-12-30	2,236	46,448,436	16,518,648	18,868,972	35,387,620	76.2%	2,082,733,900	1.70%
2023-03-31	2,477	50,601,820	18,694,062	20,010,795	38,704,857	76.5%	2,357,023,800	1.64%
2023-06-29	2,550	50,755,817	19,455,179	22,072,629	41,527,808	81.8%	2,442,708,500	1.70%
2023-08-30	2,561	51,489,906	20,178,181	22,270,387	42,448,568	82.4%	2,474,537,800	1.72%
2023-09-26	2,463	52,631,446	19,913,980	22,356,528	42,270,508	80.3%	2,362,403,300	1.79%
2023-10-13	2,456	49,492,020	18,464,129	21,864,284	40,328,413	81.5%	2,356,365,000	1.71%
2023-10-30	2,311	47,194,481	17,183,887	21,198,599	38,382,486	81.3%	2,210,658,600	1.74%
2023-11-07	2,444	47,810,097	16,603,948	21,252,746	37,856,694	79.2%	2,350,490,800	1.61%
2023-11-28	2,522	48,538,664	17,204,508	21,132,785	38,337,293	79.0%	2,419,885,000	1.58%
2023-12-14	2,544	51,332,846	17,458,224	21,258,829	38,717,053	75.4%	2,455,403,000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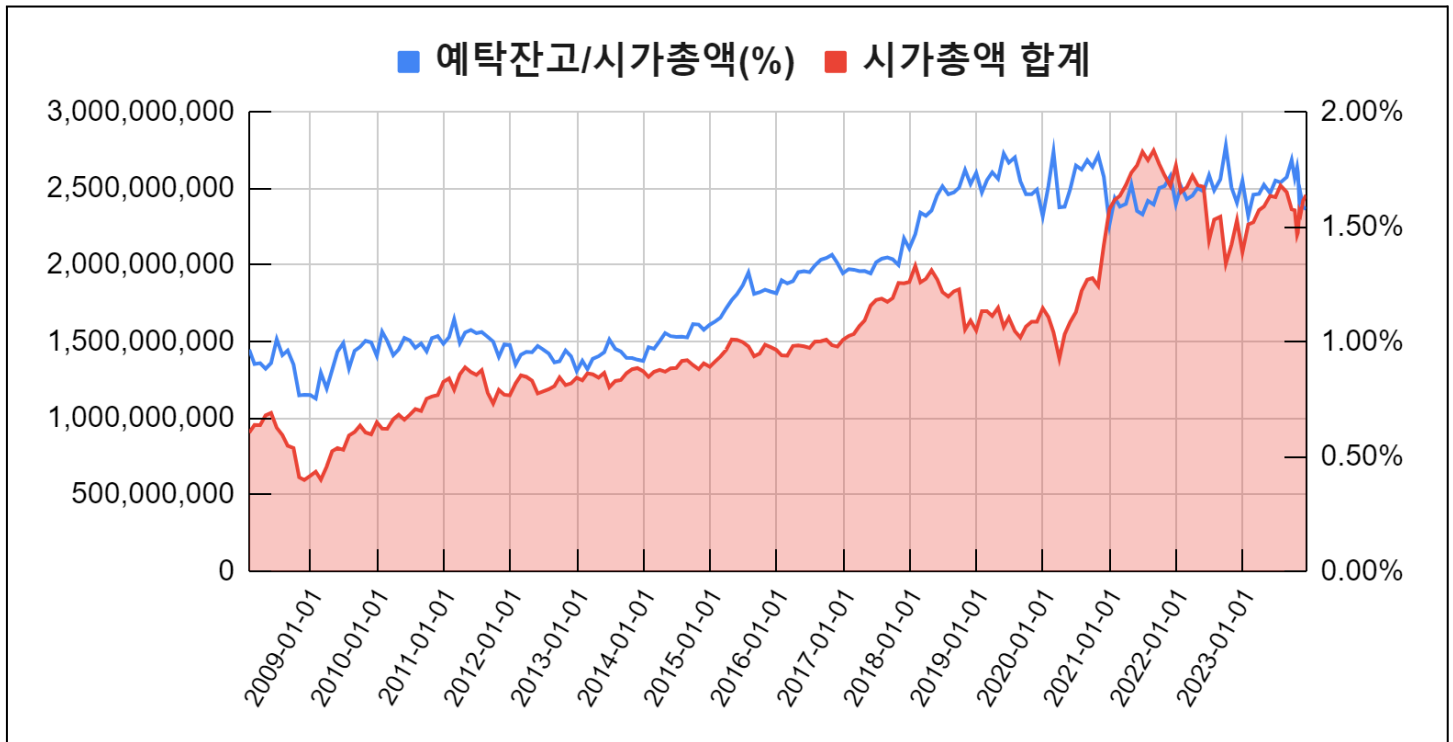
< 예탁잔고 대비 신용융자 비율 >



<투자자예탁금 및 용자 추이>



<예탁잔고/시가총액 추이>



8. 용자잔고율의 분모인 투자자예탁금은 지수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음.

9. 지수가 하락하고, 주식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 등이 상승하는 시기이면 (지수하락과 투자자예탁금 하락으로 인해) 용자잔고율이 오를 수 있음.

10. 역사적으로 지수하락은 신용물량 투매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함. 바닥도 대개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듯함.

Yield spread - 1.30%임. 전월 말보다 소폭 상승! 채권금리 하락!

1. 농부들이 땅을 경작하여 얻는 수확물을 yield라고 표현함. 이자율을 yield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어권의 일반적인 용어임. 금융 시장에서 yield는 이자율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함.

2. Yield spread는 주식시장의 이자율과 채권시장의 이자율 비교를 통해 상대매력을 알아보기 위함임. 코스피의 이자율과 미국채 10년 만기의 이자율을 비교해봄. 극단적으로 yield가 (-) 면 주식할 필요가 없음. 미국 국채 투자해야 합니다.

주) '1/PER minus US 10-Year Bond Yield' 로 계산합니다.

▷ 23년 12월 14일: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 3%대 진입. Yeild 소폭 상승.

▷ 23년 11월 07일: 전월말과 동일함. 0.88%임.

▷ 23년 10월 30일: 지수하락으로 스프레드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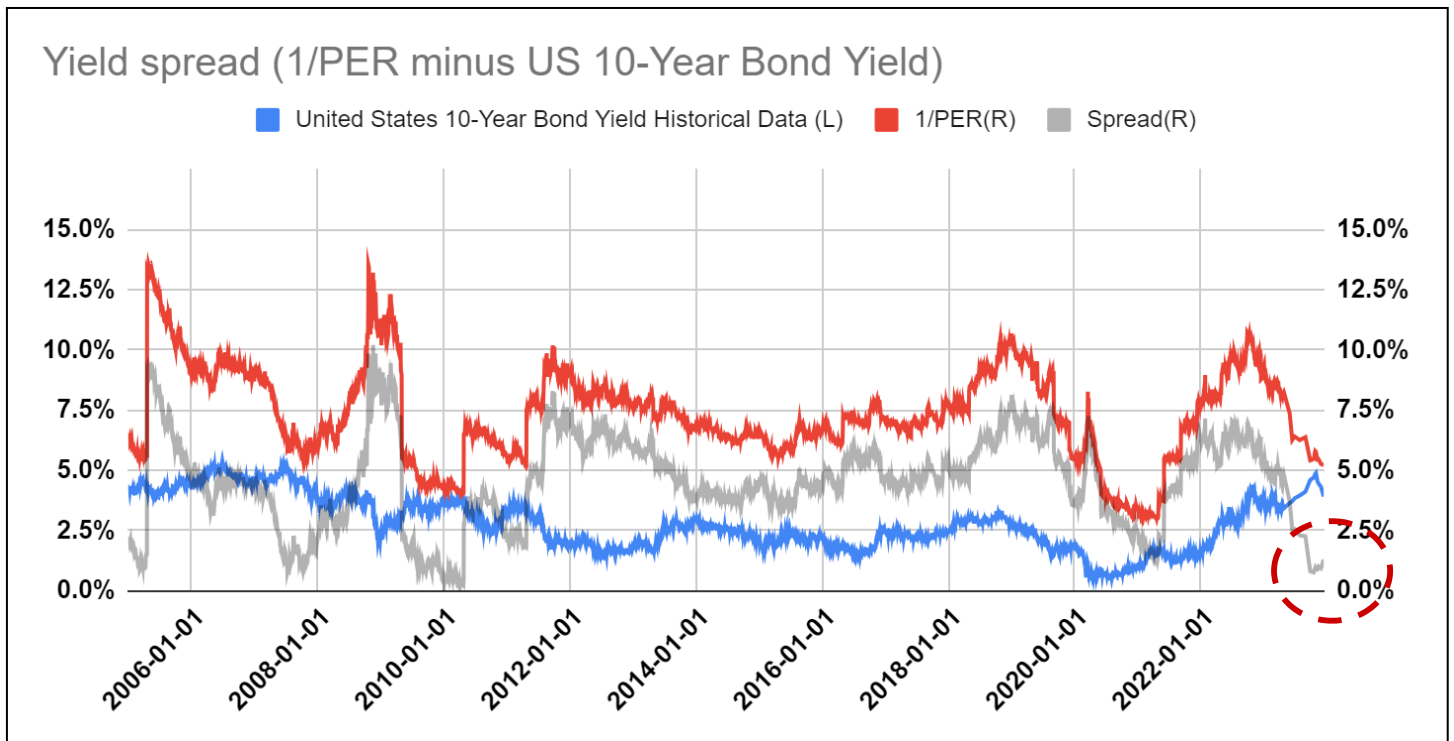
▷ 23년 10월 16일: 스프레드가 하락하고 있음. 주식이 더 하락하거나, 채권금리가 더 하락해야 주식 매력이 커질 듯함.

▷ 23년 9월: 국채 금리가 이 속도로 상승하면 주식할 필요 없을 듯. 주식대비 채권 금리가 상대적으로 꽤 높은 수준임.

<Yield spread (KOSPI 1/PER minus US 10-Year Bond Yield)>

Date	United States 10-Year Bond Yield Historical Data	1/PER	Spread	Remark
2008-10-31	3.97%	11.31%	7.34%	
2011-10-31	2.12%	8.80%	6.69%	
2020-03-31	0.67%	6.82%	6.15%	
2020-08-31	0.71%	3.75%	3.04%	
2020-12-30	0.93%	3.39%	2.47%	
2021-01-29	1.07%	3.27%	2.20%	
2021-12-30	1.51%	7.86%	6.35%	
2022-12-29	3.82%	9.29%	5.47%	
2023-03-31	3.47%	8.35%	4.88%	
2023-06-29	3.84%	6.41%	2.57%	
2023-08-30	4.11%	6.38%	2.27%	
2023-09-27	4.55%	5.42%	0.81%	
2023-10-30	4.89%	5.77%	0.88%	미국채 금리가 급하게 상승하고 있음
2023-11-07	4.57%	5.45%	0.88%	채권금리 소폭 하락
2023-11-28	4.33%	5.27%	0.94%	채권금리 소폭 하락
2023-12-14	3.92%	5.22%	1.30%	채권금리 하락

<Yield spread (KOSPI 1/PER minus US 10-Year Bond Yield)>



KOSPI - P/E 19.2, P/B 0.93, 배당수익률 1.93%

1. 코스피는 대한민국 대표 지수임. 1980년 1월 4일 지수 100을 기준으로 함.

참고) 코스닥은 현재 1,000이 기준임. 100으로 시작했지만 IT버블 때, 너무 많이 하락해서 10배 스케일업 함.

2. 시장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지표로 PER, PBR, ROE, 배당수익률 등이 있음.

주) PER의 역수는 '순이익/시총' 이므로 투자자본대비 Return을 의미함. 이자율임. 주로 채권이자율이나 ROE와 비교함.

3. PER (=시총/순이익)은 이익과 관련된 지표이므로 이익 부침이 심한 기업일 경우, 저평가와 고평가 등락이 심함. 미래 PER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해야 하고 PER만으로 기업의 저평가/고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4. 투자자들이 자본의 1배도 인정 못한다는 것 (PBR이 1 미만인 경우)은 재산의 성질, 성장성, 혹은 이익력 (ROE 등) 등을 좋지 않게 평가한다는 말임. 전망이 밝은 경우, 투자타이밍이 될 수 있으나, 저PBR만으로 투자하면 안 됨.

5. 과거 PER이나 PBR의 추세를 탐구하는 것은 현재 대비 상대매력을 비교하기 위함임. 기본적으로 평균회귀의 개념을 깔고 감. 실제로 평균회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6. 과거 지표는 미래 정보를 주지 않음.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 투자타이밍으로 사용하기보다 현재가 과거대비 저평가인가 고평가에 대한 단서로만 사용하길 권함.

7. $PBR = ROE \times PER = ROE \times 1/k$ 임.

주) k는 요구수익률, 전망이 밝은 경우 ROE가 k보다 작으면 전반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시기임. PBR과 PER이 낮은 경우라는 의미임.

▷ 2023년 12월 14일: 지수상승으로 대부분의 지표 소폭 상승함.

▷ 2023년 11월 07일: 지수상승으로 대부분의 지표 소폭 상승함.

▷ 2023년 10월 30일: 지수하락으로 지표가 소폭 개선되으나, 투자하기 좋은 지표는 아닌 듯함.

▷ 2023년 9월 말: 지수는 하락했지만, 기업들 2분기 이익 감소로, 멀티플이 상승함.

▷ 2023년 8월 말: 코스피 지표는 PER 15.7, PBR 0.9, ROE 6.0% 임. PER은 과거 대비 낮은 수준도 높은 수준도 아닌 듯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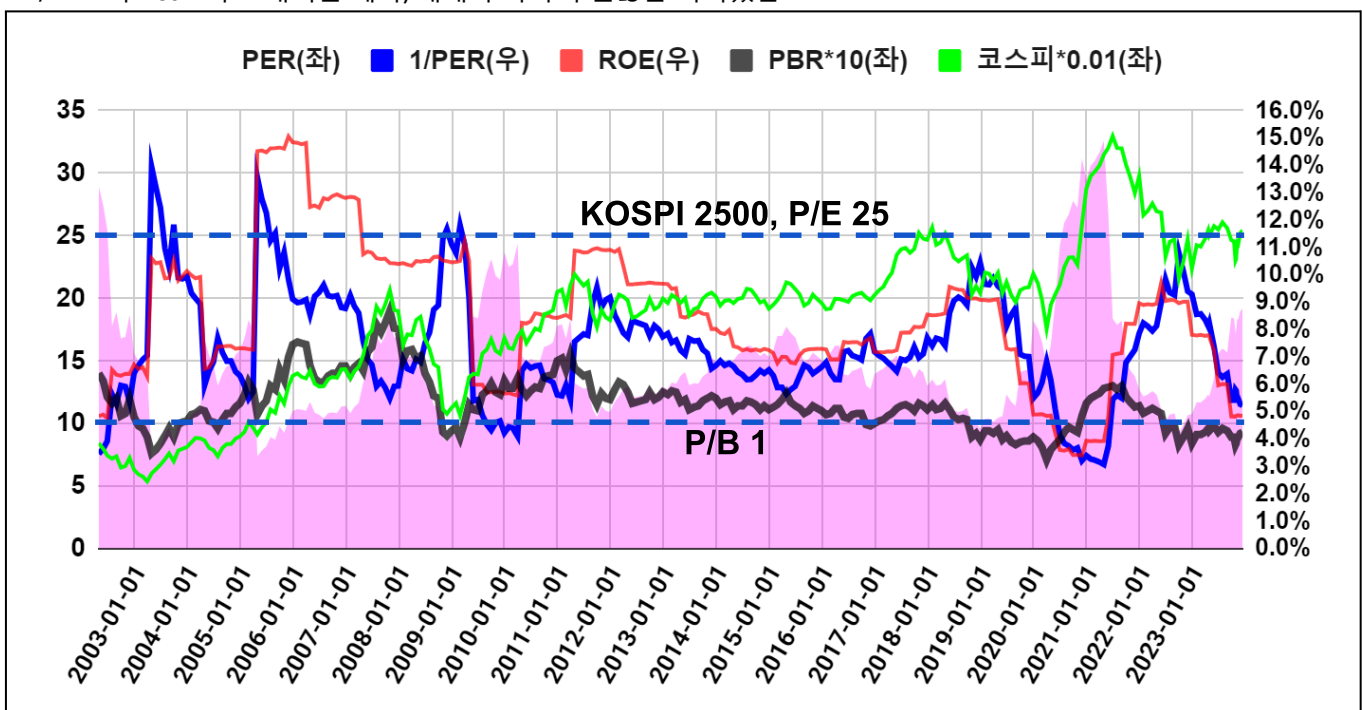
<KOSPI PER 및 PBR 추이>

일자	KOSPI	PER	PBR	ROE	1/PER(우)	배당수익률	비고
2008-10-31	1,113	8.8	0.9	10.5%	11.3%	2.66%	글로벌 금융위기
2011-10-31	1,909	11.4	1.2	10.9%	8.8%	1.47%	동일본쓰나미, 리비아 사태, 유럽경제위기
2020-03-31	1,755	14.7	0.7	4.8%	6.8%	2.51%	코로나
2020-08-31	2,326	26.7	1.0	3.6%	3.7%	1.85%	
2020-12-30	2,873	29.5	1.2	3.9%	3.4%	1.48%	
2021-01-29	2,976	30.6	1.2	3.9%	3.3%	1.43%	
2021-12-30	2,978	12.7	1.1	9.0%	7.9%	1.82%	
2022-12-29	2,236	10.8	0.84	7.8%	9.3%	2.22%	
2023-03-31	2,477	12.0	0.93	7.8%	8.4%	2.00%	
2023-06-29	2,550	15.6	0.93	6.0%	6.4%	1.95%	
2023-08-30	2,561	15.7	0.94	6.0%	6.4%	1.93%	
2023-09-27	2,465	18.5	0.89	4.8%	5.4%	2.00%	
2023-10-30	2,311	17.3	0.84	4.8%	5.8%	2.13%	
2023-11-07	2,444	18.3	0.89	4.9%	5.5%	2.02%	
2023-11-28	2,522	19.0	0.92	4.8%	5.3%	1.95%	
2023-12-14	2,544	19.2	0.93	4.9%	5.2%	1.93%	

<KOSPI PER 및 PBR 추이>

* PBR 10배 Scale-up함, KOSPI 1/100배 Scale-down함

**1/PER 이 Peak 찍고 내려올 때가, 대개 투자하기 괜찮은 시기였음.



8. 자본을 조달한 사람은 더이상 돈을 잘 불리지 못하거나, 더 쓸 돈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해야 함. 하지 않으면 돈떼먹는 양아치와 다를 바 없음. 이런 일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그 기업의 자본을 낮게 평가하게 됨.

9. 낮은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은 저 PBR의 한 원인일 수 있음.

주) 낮은 배당성향에 대해 대주주를 마냥 욕하기 부르기가 어려움. 현재 제도는 세금이 많아 대주주도 잉여금을 분배받기가 부담스러운 구조임.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투자자/국가/대주주에게 모두 좋을 듯. 배당유인 정책이 부족한 듯함.

10. $\text{적정PBR} = \text{적정 시총} / \text{자본} = [\text{예상 배당지출} / (\text{요구수익률} - \text{성장률})] / \text{자본}$
 $= \text{예상배당성향} \times \text{ROE} / (\text{요구수익률} - \text{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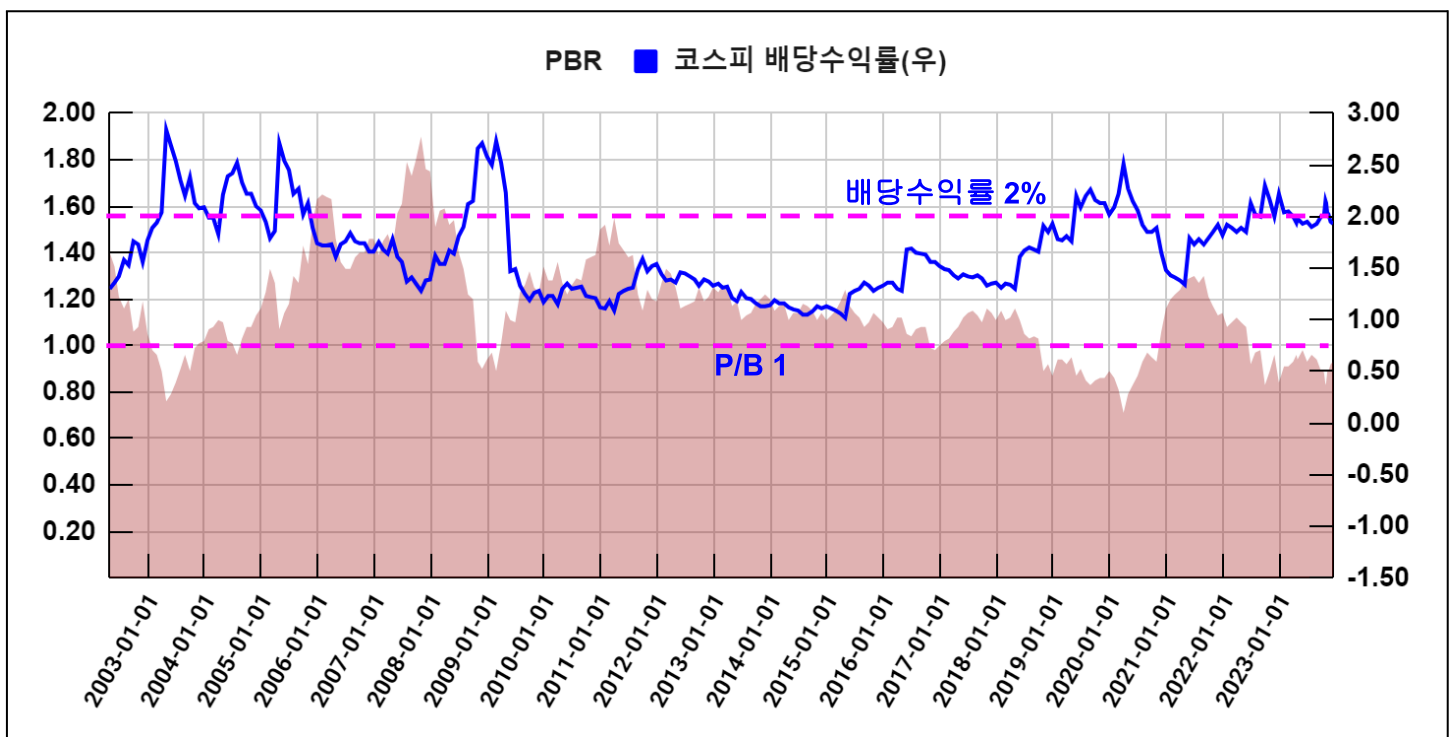
주) 위 식은 고든 성장 모델에서 유도한 식입니다. PBR은 주주환원과 ROE의 함수임을 나타냅니다.

▷ 2023년 10월 30일: 주주환원 좀 합시다!!! PBR이 저게 뭘니까 라고 외쳐봄.

▷ 2023년 9월

- 코스피의 PBR은 0.89배이고 배당수익률은 2.0%임.

-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2022년 기준 25.6%로 OECD 국가 평균(53.4%)보다 낮음.



글로벌 지수와 환율 - 12월 지수 상승, 원화 약세!

1. 한국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글로벌 지수를 모니터링함.

- ▷ 2023년 12월 14일: 12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함. 12월 소폭 약세.
- ▷ 2023년 10월 31일: 3개월째 시장 분위기 좋지 않음.
- ▷ 2023년 9월: 글로벌증시 하락, 원화 약세 지속
- ▷ 2023년 8월: 글로벌증시가 하락하였고, 원화 약세가 심함.

2. 1)원화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2)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글로벌 대표적인 통화와 원화와 상대 강도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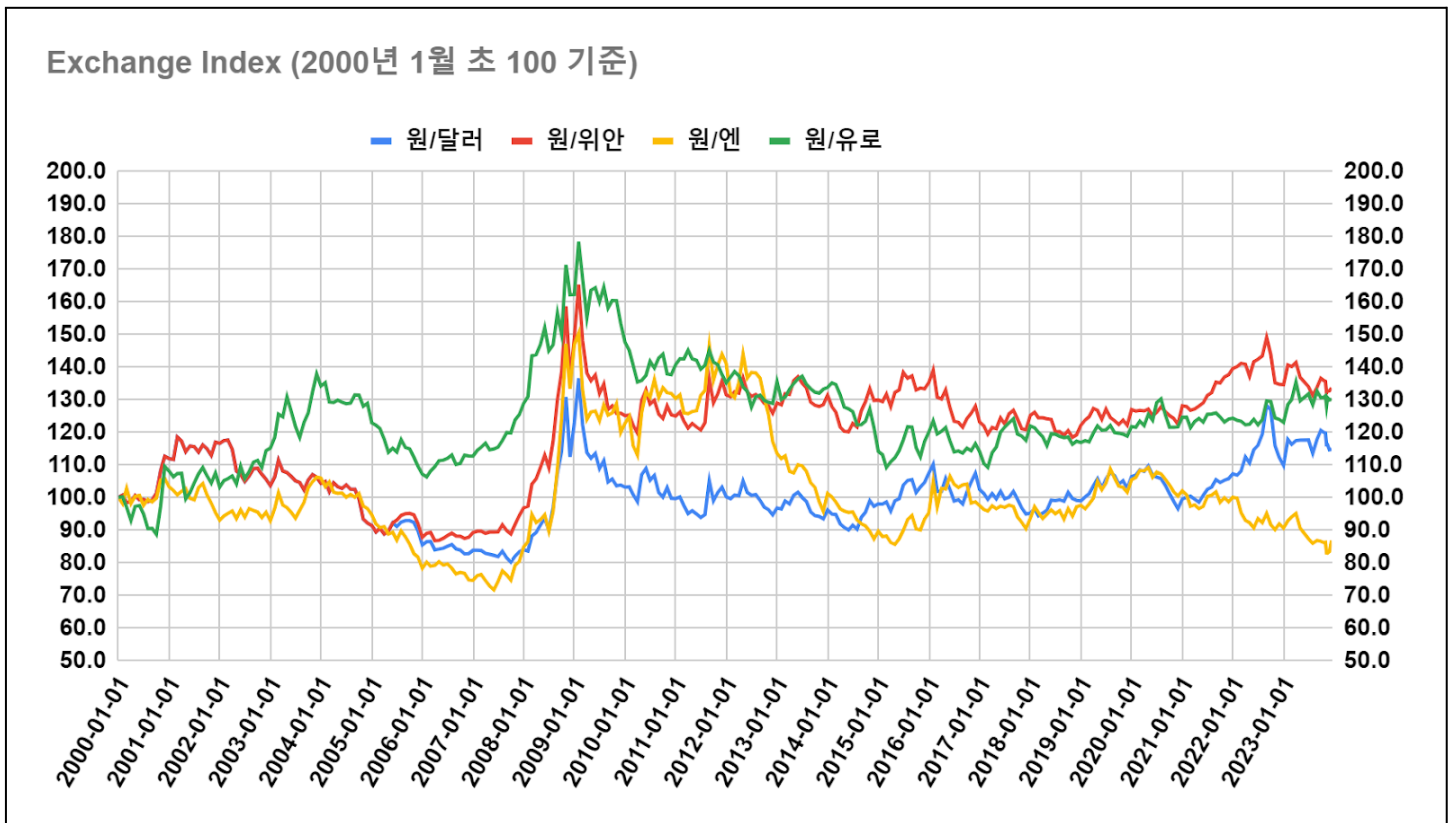
- ▷ 2023년 12월 14일: 원화 강세임. 엔화도 바닥에서 올라오는중.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 ▷ 2023년 10월 31일: 2023년은 전반적으로 원화 약세 분위기임. 엔화는 땅굴을 파고 있음.
- ▷ 2023년 9월: 엔화 약세 지속.
- ▷ 2023년 8월: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유로도 23년 들어 원화 대비 강세임.

<글로벌 지수와 외화대비 원화환율, 2023년 12월 21일 한국 시간 기준>

분류	종목명	지수, 환율	상승률								
			12월	11월	10월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한국	KOSPI	2,600	2.6%	11.3%	-7.6%	17%	-26%	2%	35%	8%	-19%
한국	KOSDAQ	859	3.3%	13.0%	-12.5%	27%	-35%	7%	44%	0%	-16%
미국	S&P500	4,698	3.2%	9.2%	-2.5%	23%	-20%	27%	16%	29%	-7%
미국	나스닥	14,778	3.6%	11.5%	-2.1%	42%	-34%	21%	44%	35%	-4%
미국	러셀2000	1,983	9.9%	9.5%	-6.5%	13%	-22%	14%	18%	24%	-13%
일본	니케이	33,140	-1.0%	8.5%	-4.1%	29%	-12%	7%	17%	19%	-14%
중국	항셱	16,621	-2.5%	-0.6%	-2.5%	-17%	-13%	-15%	-4%	14%	-18%
독일	닥스	16,666	2.7%	10.3%	-3.5%	18%	-12%	17%	3%	27%	-18%
유럽	유로 스톡스50	4,517	3.0%	8.8%	-2.4%	17%	-11%	22%	-6%	27%	-14%
인도	인도 센섹스	70,727	5.6%	4.8%	-2.7%	16%	3%	24%	16%	14%	7%
유럽	인도 니프티50	21,220	5.4%	5.5%	-2.7%	17%	3%	26%	15%	12%	5%
환율	원/위안	182.6	-0.3%	-0.9%	-0.1%	-0.2%	-2.2%	12.6%	0.5%	2.0%	-0.8%
환율	원/달러	1,304.9	0.5%	-4.0%	0.0%	3.4%	6.1%	9.6%	-6.0%	3.7%	4.4%
환율	원/엔	9.11	3.6%	-2.3%	-0.8%	-5.3%	-6.8%	-1.7%	-1.0%	4.6%	7.3%
환율	원/유로	1,428.2	0.8%	-1.1%	0.4%	6.0%	-0.4%	2.0%	2.3%	1.5%	-0.2%
환율	원/루피	15.7	0.6%	-4.1%	0.0%	2.8%	-4.4%	7.7%	-8.4%	1.4%	-4.4%
환율	원/동	0.054	0.2%	-2.8%	0.1%	1.2%	1.9%	10.6%	-6.0%	4.2%	

<환율 인덱스(원화대비)>

날짜	원/달러	원/엔	원/위안	원/유로	Index(2000년 1월 말, 100)				비고
					달러원	엔원	위안원	원/유로	
2008-10	1,282.5	13.0	188.2	1,633.0	114.2	124.5	138.6	149.9	
2011-10	1,111.9	14.2	175.0	1,540.7	99.0	135.9	129.0	141.4	글로벌 금융위기
2020-03	1,218.3	11.3	172.0	1,343.7	108.4	108.3	126.7	123.4	코로나19
2020-08	1,187.9	11.2	173.4	1,417.9	105.7	107.2	127.8	130.2	
2020-12	1,084.5	10.5	166.1	1,324.5	96.5	100.4	122.4	121.6	
2021-01	1,117.6	10.7	173.8	1,356.4	99.5	102.0	128.0	124.5	
2021-12	1,188.0	10.3	186.8	1,350.5	105.7	98.7	137.6	124.0	
2022-12	1,260.9	9.6	182.7	1,349.4	112.2	91.9	134.6	123.9	
2023-03	1,306.1	9.8	190.1	1,415.7	116.3	94.0	140.1	130.0	
2023-06	1,321.5	9.1	181.8	1,434.8	117.6	87.3	133.9	131.7	
2023-08	1,323.7	9.1	181.6	1,443.9	117.8	86.8	133.8	132.6	
2023-09	1,354.5	9.1	185.3	1,422.3	120.6	86.5	136.5	130.6	
2023-10	1,345.6	9.02	184.0	1,428.1	119.8	86.3	135.6	131.1	
2023-11	1,287.3	8.73	180.1	1,414.7	114.6	83.4	132.7	129.9	
2023-12-14	1,288.7	9.08	181.2	1,416.4	114.7	86.8	133.5	130.0	



국내시장 상세 - 코스피 중소형주 시총상승 주도!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도 시장 상황에 늘 주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국내시장의 시가총액 변화와 대형주의 순위 변화를 통해, 대강의 시장흐름을 가늠해 봅니다.

1. 국내시장 등락률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신규 상장된 종목을 포함하고 상장폐지된 종목을 제외하므로, 지수 상승률과 다를 수 있음.

2. 코스피, 코스닥 전체 종목의 월간/연간 상승률임.

KOSPI	22/12/29	23/11/30	23/12/14	상승(월)	상승(연)	KOSDAQ*	22/12/29	23/11/30	23/12/14	상승(월)	상승(연)
시가총액(조)	1,767	2,028	2,036	0.4%	15.2%	시가총액(조)	315	410	419	2.3%	32.8%

- ▷ 2023년 12월 14일: 월간 코스피 8.7조, 코스닥 9.4조 상승함. 합계 18.1조 상승함.
- ▷ 2023년 11월 09일: 월간 코스피 118.2조, 코스닥 32.7조 상승함. 합계 150.9조 상승함.
- ▷ 2023년 10월 31일: 월간 코스피 140.4조, 코스닥 49.1조 사라짐. 합계 189.5조 사라짐.
- ▷ 2023년 9월: 월간 코스피, 코스닥 합쳐 대략 56조 사라짐.
- ▷ 2023년 8월: 월간 코스피, 코스닥 합쳐 대략 64조 사라짐.

3. 코스피/코스닥 **시총 상위 20개 기업을 제외한 시가총액 월간 상승률**임.

KOSPI	22/12/29	23/11/30	23/12/14	상승(월)	상승(연)	KOSDAQ*	22/12/29	23/11/30	23/12/14	상승(월)	상승(연)
시가총액(조)	822	888	896	0.9%	8.9%	시가총액(조)	259	294	299	1.7%	15.2%

- ▷ 2023년 12월 14일: 월간 코스피 7.6조, 코스닥 5.1조 상승함. 합계 12.6조 상승함. 중소형주들이 시총 상승을 주도함.
- ▷ 2023년 11월 09일: 합하여 70.8조 상승함. 시총Top 종목들의 상승률이 높음. 소형주투자자들의 눈물이 보이는 듯함.
- ▷ 2023년 10월 31일: 합하여 98.7조 사라짐. 전반적으로 하락함.
- ▷ 2023년 09월: 코스피, 코스닥 종목 모두 골고루 하락함.
- ▷ 2023년 08월:
 - 코스피/코스닥 모두, 시총 상위 기업이 하락을 주도함.
 - 코스닥은 상위 20개를 제외하면 합계 시총이 상승함. 신규상장이 많았음. 2023년 8월 신규 상장한 기업 중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NICE평가정보 등 비교적 큰 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4. 코스피/코스닥 각 시총 상위 20개 기업의 월간/연간 상승률임.

▷ 2023년 12월 14일 기준, 상위 20위 종목 월간 변화

- 코스피: 삼성생명 신규, SK이노베이션 제외.
- 코스닥: 위메이드, 루닛 신규, 이오테크닉스, 휴젤 제외.

▷ 2023년 11월 09일 기준, 상위 20위 종목 월간 변화

- 코스피: 변화없음.
- 코스닥: 위메이드 신규, 루닛 제외

<시총 상위 20개 기업의 월간 상승률, 신규는 형광펜>

KOSPI 상위(조)						KOSDAQ 상위(조)					
	22/12/29	23/11/30	23/12/14	상승(월)	상승(연)		22/12/29	23/11/30	23/12/14	상승(월)	상승(연)
삼성전자	330.1	434.6	436.4	0.4%	32.2%	에코프로비엠	9.0	26.8	31.3	16.8%	247.4%
LG에너지솔루션	101.9	106.4	98.9	-7.0%	-3.0%	에코프로	2.6	19.9	16.2	-18.4%	525.5%
SK하이닉스	54.6	97.5	99.5	2.1%	82.3%	셀트리온헬스케어	9.2	12.3	13.2	7.9%	44.1%
삼성바이오로직스	58.4	51.6	49.7	-3.7%	-15.0%	포스코DX	1.0	8.7	7.9	-9.2%	732.0%
삼성전자우	41.6	47.6	49.3	3.5%	18.6%	엘앤에프	6.2	6.4	6.8	6.0%	8.4%
POSCO홀딩스	23.4	40.8	39.0	-4.6%	66.7%	HLB	3.3	4.1	5.2	27.1%	58.1%
현대차	32.3	39.0	39.1	0.3%	21.2%	알테오젠	2.0	4.1	3.6	-13.3%	82.3%
NAVER	29.1	33.8	36.2	7.2%	24.4%	HPSP	1.1	3.8	4.0	4.8%	266.1%
기아	24.0	34.5	35.1	1.5%	45.8%	JYP Ent.	2.4	3.4	3.3	-3.9%	36.2%
LG화학	42.4	35.4	32.8	-7.4%	-22.7%	셀트리온제약	2.5	3.2	3.6	14.2%	43.7%
삼성SDI	40.6	32.5	30.8	-5.0%	-24.1%	레인보우로보틱스	0.6	3.4	3.4	0.0%	495.1%
포스코퓨처엠	13.9	25.1	27.1	7.9%	94.4%	리노공업	2.4	3.0	3.1	3.4%	32.8%
셀트리온	22.6	23.8	26.9	12.6%	18.9%	풀어비스	2.7	2.4	2.5	4.0%	-6.3%
삼성물산	21.2	22.1	24.9	12.3%	17.2%	클래시스	1.2	2.7	2.6	-3.8%	117.9%
카카오	23.7	22.4	24.1	7.6%	2.1%	위메이드	1.1	1.8	2.4	30.2%	121.2%
현대모비스	18.9	21.4	20.7	-3.5%	9.5%	솔브레인	1.7	2.2	2.3	5.8%	34.5%
KB금융	19.8	21.1	20.9	-1.0%	5.6%	루닛	0.4	1.4	2.6	80.0%	601.8%
신한지주	17.9	19.0	19.5	2.7%	9.1%	카카오게임즈	3.7	2.2	2.2	1.7%	-39.8%
LG전자	14.2	16.8	15.8	-5.7%	11.9%	에스엠	1.8	2.1	2.0	-3.0%	9.8%
삼성생명	14.2	14.0	14.1	0.4%	-1.0%	동진세미캠	1.5	2.0	2.0	2.1%	31.1%
합계	944.8	1,139.6	1,140.8	0.1%	20.7%	합계	56.3	115.9	120.3	3.8%	113.7%

버핏지수 - 112.9%, 전월대비 1.7%p 상승!

1. 워렌 버핏은 2001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 과의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하는 가장 훌륭한 방식은 그 나라의 시가총액을 국내 총생산과 비교하는 것" 이라고 언급했음. 그 때부터 버핏지수로 불림

2. '시가총액/국내총생산(GDP) x 100' 으로 계산함.

3. 버핏 지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일반적으로 100%가 넘으면 고평가, 80%이하로 내려가면 저평가로 해석함.
- 저평가/고평가에 대해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은 없음.
- 2)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에는 고평가 구간(100% 이상)에 머무는 기간이 더 많음.
- 3) GDP는 국내총생산 기준이므로 해외 매출을 반영하지 않음.
- 4) 금리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음 (금리가 낮거나 높으면 시총이 높거나 낮을 수 있음).
- 5) 비상장사는 GDP에는 포함되나 시총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 면에서 국가 간 비교 시 PBR이 더 적합한 듯함.

4. 위의 이유로 버핏지수만 보면 안 됨. 나름대로 밸류에이션 평가하고,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면 전혀 보지 않는 것도 좋을 수 있음. 잘못 보면 노이즈인 듯.

5. 최근의 버핏 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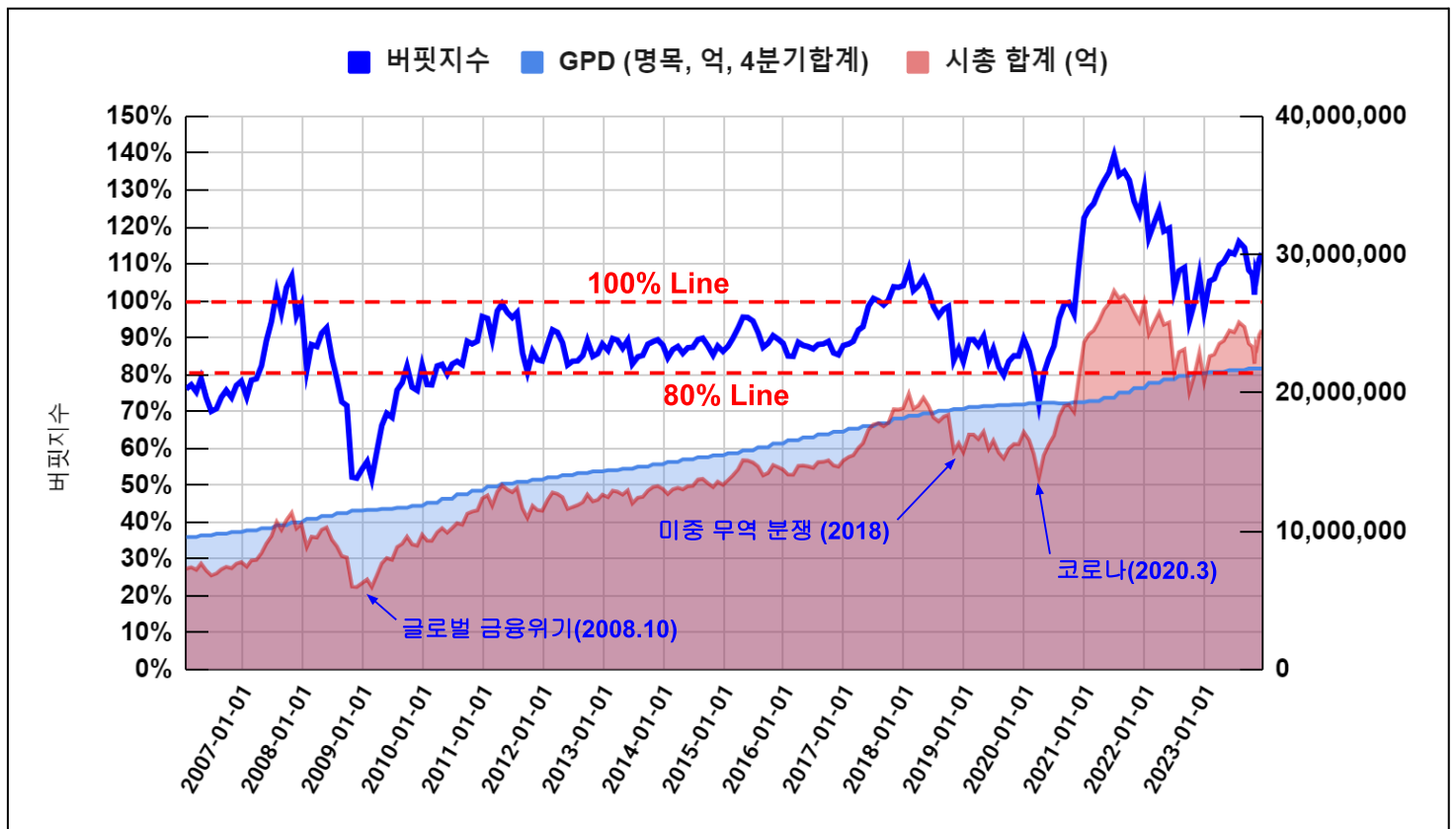
- ▷ 2023년 12월 14일: 112.9%임. 최근 10년 월말 기준 중앙값 94.5%.
- ▷ 2023년 11월 07일: 108.0%임. 최근 10년 월말 기준 중앙값 92%. GDP 상승이 좀 아쉬움.
- ▷ 2023년 10월 30일: 102%임, 최근 10년 월말 기준 중앙값 91%.
- ▷ 2023년 09월: 현재 108%, 최근 10년 월말 기준 중앙값 89%.
- ▷ 2023년 08월: 현재 114%, 최근 10년 월말 기준 중앙값 92%.
- ▷ 2023년 07월: 현재 116%, 최근 10년 월말 기준 중앙값 92%.

<버핏 지수>

* '월말 시가총액/최근4분기 합계 명목 GDP' 로 계산

** 출처 : 금융투자협회(시가총액), GPD(e-나라지표)

Date	기준GPD	코스피 시총(억)	코스닥 시총(억)	시총 합계 (억)	GPD (명목, 억, 4분기합계)	버핏지수	10년 중앙값 (Median)
2008-10-30	2008.3/4	5,519,331	474,319	5,993,650	11,493,660	52.1%	
2011-10-31	2011.3/4	10,817,856	1,020,128	11,837,984	13,723,205	86.3%	
2020-03-31	2019.4/4	11,797,287	2,082,776	13,880,063	19,244,981	72.1%	87.8%
2020-08-31	2020.2/4	15,810,998	3,224,272	19,035,270	19,243,408	98.9%	88.0%
2020-12-30	2020.3/4	19,805,432	3,855,826	23,661,258	19,319,115	122.5%	88.3%
2021-01-29	2020.4/4	20,513,024	3,736,919	24,249,943	19,407,262	125.0%	88.3%
2021-12-30	2021.3/4	22,033,665	4,462,970	26,496,635	20,351,365	130.2%	89.0%
2022-12-29	2022.3/4	17,672,352	3,154,987	20,827,339	21,414,129	97.3%	89.4%
2023-03-31	2022.4/4	19,579,264	3,990,974	23,570,238	21,505,758	109.6%	89.5%
2023-06-29	2023.1/4	20,248,844	4,140,206	24,389,050	21,648,262	112.7%	89.5%
2023-08-30	2023.1/4	20,296,723	4,472,203	24,768,926	21,648,262	114.4%	89.7%
2023-09-26	2023.2/4	19,534,626	4,024,567	23,559,193	21,756,945	108.3%	89.8%
2023-10-30	2023.2/4	18,406,847	3,699,739	22,106,586	21,756,945	101.6%	91.4%
2023-11-07	2023.2/4	19,470,752	4,034,156	23,504,908	21,756,945	108.0%	92.0%
2023-11-28	2023.2/4	20,177,292	4,021,558	24,198,850	21,756,945	111.2%	93.0%
2023-12-14	2023.2/4	20,364,711	4,189,319	24,554,030	21,756,945	112.9%	94.5%



6. 글로벌 국가들의 버핏 지수 상승률임.

주) GDP는 비상장사가 포함되어 있어, 국가별 비교시 P/B 가 주식투자에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출처) <https://www.gurufocus.com/global-market-valuation.php>

<글로벌 버핏 지수>

*월간상승 내림차순.

** 출처 : <https://www.gurufocus.com/global-market-valuation.php>,

*** 버핏 지수는 집계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

Country	월간 상승	23/12/22	23/11/30	23/10/31	23/10/03	23/08/30	23/07/28	23/06/30	ETF
Sweden	7.1%	165.2	154.3	141.6	146.4	149.7	156.4	155.2	EWD
Mexico	6.3%	36.6	34.4	31.2	32.6	34.6	34.9	34.1	EWW
Australia	6.0%	106.4	100.4	96.0	98.3	103.4	105.1	101.6	EWA
India	5.8%	104.2	98.5	93.9	96.8	95.7	97.2	93.9	INDA
USA	4.2%	172.2	165.3	149.5	159.8	166.7	170.8	166.7	SPY
Brazil	3.8%	56.8	54.7	48.6	49.5	50.5	51.7	50.9	EWZ
Pakistan	3.6%	18.8	18.2	15.6	14.0	13.9	14.2	12.5	PAK
France	3.6%	126.0	121.7	114.6	117.6	122.6	124.4	121.7	EWQ
Netherlands	3.2%	143.0	138.5	130.1	131.1	135.0	143.8	139.2	EWN
UK	3.2%	107.7	104.4	102.5	105.2	104.6	107.7	104.6	EWU
Germany	2.9%	59.1	57.4	52.4	54.0	56.2	58.3	56.4	EWG
Korea	2.9%	100.4	97.7	87.7	95.0	98.7	101.4	98.6	EWY
Canada	2.6%	144.7	141.0	131.5	133.6	141.7	143.0	138.8	EWC
Belgium	2.6%	57.0	55.6	52.9	55.3	57.7	59.7	55.1	EWK
Switzerland	2.6%	239.9	233.9	224.0	234.1	239.0	243.9	240.7	EWL
Indonesia	2.2%	43.2	42.3	40.3	41.6	41.6	41.2	39.8	EIDO
Singapore	2.0%	148.9	146.0	145.8	151.4	153.0	160.5	152.8	EWS
Italy	1.8%	39.7	39.0	36.4	36.6	38.0	38.7	36.7	EWI
Spain	0.5%	58.8	58.5	52.5	54.2	55.6	56.3	55.3	EWP
South Africa	-0.5%	297.2	298.6	277.2	287.2	296.7	311.5	296.9	EZA
Japan	-0.8%	151.6	152.8	140.8	143.2	147.6	152.3	150.5	EWJ
Egypt	-1.7%	18.6	18.9	17.2	15.2	14.4	13.4	13.5	EGPT
Russia	-1.9%	32.1	32.7	33.1	32.4	33.2	31.1	28.7	ERUS
Hong Kong	-2.0%	1030.6	1052.1	1056.4	1099.4	1141.0	1229.5	1168.8	EWH
Turkey	-2.3%	64.2	65.7	62.1	145.2	135.3	120.9	98.5	TUR
China	-4.0%	54.7	57.0	57.0	58.7	59.1	61.8	60.0	MCHI

그 외 시장관련 지표

시장/산업 관련 지표는 찾아보면 아주 많음. 몇 개의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함 (추가될 수 있음).

1. Fear &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 [설명 및 현재상태, 장기트렌드, 지수\(S&P500\)와 비교](#)

2 Yield spread (장단기 금리차) : [10년만기 국채 - 2년만기 국채 \(feat. S&P500\)](#)

3. VIX (변동성 지수 혹은 공포지수) : [CBOE Volatility Index](#)

주) 설명은 메르님 블로그에서 읽어보시길 권함. <https://blog.naver.com/ranto28/223237681488>

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 지수추종 ETF

- <https://www.nasdaq.com/market-activity/index/sox>

- [iShares Semiconductor ETF \(SOXX\)](#)

이상입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Orangeboard
Market watch

훑어보기 - 시가배당 수익률 Top115 (DIV% 6.0% 이상)

1. 기업이 실질적으로 주주환원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사주 소각과 배당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린 기업은 주가도 견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QTTBK6BK>

배당 '화끈'한 기업들, 주가도 '후끈'

입력 2023-06-12 18:05:21 수정 2023.06.12 18:05:21 양지혜 기자



분기배당 결정 19개 기업 중

14곳이 연초 이후 '상승기류'

번 돈보다 더많은 금액 지급한

삼성전자·하이닉스·케이카는

두자릿수 급등...상승폭 더 커

전문가 "장기투자 촉진" 평가

2. 배당이 증가되면 투자할 유인이 높아집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9415.html

은행주의 이유 있는 10년 제자리걸음

미국의 은행주 주가들을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 1위 은행인 제이피모건체이스는 지난 10년간 6배 성장했고, 이는 같은 기간 에스앤드피(S&P) 지수 상승률의 2배가 넘으며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과 비슷하다. 게다가 제이피모건체이스는 매년 배당도 많이 한다.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고,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재무제표를 통해 살펴보자.

- 요약 -

또한 자기자본을 활용하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서도 제이피모건은 국내 금융지주들에 비해 주주에게 후하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중 유통 물량 감소로 시장의 주식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자사주에는 배당청구권 등이 없으므로 투자자 보유 주식의 배당률이 높아지는 등 간접적인 주가 상승 효과가 있다. 제이피모건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대로 3% 이상의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한다. 자사주 매입까지 고려하면 거의 100% 환원율을 보여주는 셈이다. 국내 금융지주의 배당률은 순이익 대비 20%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자사주 매입도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의 10% 정도 수준이다. 국내 금융지주들이 글로벌 규모에 비견할 만한 크기가 되려면 지속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투자자에게는 매력 떨어질 수밖에 없다.

3. 배당수익률은 벨류에이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3.1 PER은 배당 성향이 상향되면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식은 배당 성장 모형에서 유도한 것입니다.

$$\frac{\text{적정시가총액}}{\text{예상 순이익}} = \text{PER} = \frac{\text{예상 배당지출/예상순이익}}{(\text{기대이익률} - \text{기대 성장률})} = \frac{\text{예상 배당 성향}}{(\text{기대이익률} - \text{기대 성장률})}$$

3.2 PER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은 동일합니다.

$$\text{PER} = \frac{\text{시가총액}}{\text{당기순이익}} = \frac{\text{배당지출/당기순이익}}{\text{배당지출/시가총액}} = \frac{\text{배당 성향}}{\text{시가배당수익률}}$$

4. 배당주를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배당락이 발생한 날입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당해년도 주주가 확정되는 날짜까지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은 휴장이므로 30일까지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식을 사고 2일 뒤 거래가 완료되므로, 12월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합니다 (3 거래일 기준. 그 사이 휴일이 있으면 거래일 기준으로 날짜를 따져야 함).

4.1 배당락은 주주가 확정되는 28일 다음 날, 29일에 배당락이 발생합니다. 배당락은 시장 참여자들이 배당권리를 확보하고 난 뒤, 시장에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유/무상 증자 처럼 권리락 개념이 아닙니다.

4.2. 배당을 받을 때는 이자소득세 15.4%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당주를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배당락이 발생한 날입니다.

5. 연말에는 관참은(사업이 안정적이고 살짝의 성장이 예상되는)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인 듯 합니다.

(주의) 주가가 하락하면 배당을 받더라도 낭패이므로 배당수익률보다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12월 20일 증가 기준>

* 대상: 시가배당 수익률이 6.0% 이상인 115개 종목

** 정렬: 시가배당 수익률 내림차순

*** 분기 수익률은 9월 27일 증가 기준.

**** F/L: 재무레버리지 (자산/자본 = 1+부채비율)

***** 지표: 최근 4분기 합계 기준 (자료 미비나 종목특성으로 인해 누락된 종목이 있을 수 있음).

순	기업명	주가 (원)	시총 (십억)	DIV %	최근 3년전			P/B (최근)	P/S	P/GP	P/O	P/E	OPM	ROE	F/L	상승		
					최근	1년전	2년전									3년전	년간	분기
1	한국ANKOR유전	348	24.4	537.4%	1,870	180	120	185									25%	-14%
2	락앤락	6,760	292.9	28.9%	1,953	0	0	0	0.51	0.58	1.5	233.5	-12.4	0%	-4%	1.2	8%	12%
3	한국패러렐	1,500	120.0	26.0%	390	90	235	165									-27%	2%
4	일성신약	25,150	334.5	15.9%	4,000	150	150	150	0.80	4.70	9.4	-100.9	17.5	-5%	5%	1.1	-70%	19%
5	모두투어리츠	12,150	95.1	12.9%	1,572	200	150	168									227%	162%
6	리드코프	6,300	166.6	12.7%	800	800	800	150	0.40	0.31	0.9	6.2	66.4	5%	1%	2.3	-15%	10%
7	영풍제지	2,875	133.6	11.7%	335	17	17	17	1.05	1.49	10.5	54.7	45.6	3%	2%	1.6	-77%	-94%
8	바이오노트	4,200	428.6	11.7%	490	534	33	0									-51%	-13%
9	마스턴프리미어리츠	2,685	71.4	11.4%	305	111	-	-									-28%	-6%
10	고스트스튜디오	11,950	162.3	10.9%	1,307	945	1,152	0									-5%	12%
11	S-에우	51,200	205.9	10.8%	5,525	3,825	25	225	-	-	-	-	-	-	-	-	-5%	-3%
12	미래에셋글로벌리츠	2,720	107.7	10.6%	288	180	-	-									-26%	-11%
13	크레버스	17,460	198.0	10.3%	1,800	2,000	800	1,000	4.52	0.85	0.9	7.3	16.1	12%	28%	4.8	-4%	6%
14	미래에셋맵스리츠	2,970	59.7	9.7%	289	271	285	-									-14%	-5%
15	LX인터내셔널	30,400	1,178.3	9.9%	3,000	2,300	400	300	0.48	0.07	0.7	1.6	3.2	5%	15%	2.7	-10%	6%
16	엑세스바이오	9,310	338.1	9.4%	871	0	0	0									-24%	-23%
17	삼양옵틱스	9,600	97.4	9.4%	900	900	600	1,000	3.34	2.10	5.5	22.2	41.4	9%	8%	1.3	-3%	-3%
18	디앤디플랫폼리츠	3,120	200.9	9.3%	291	301	81	-									-8%	2%
19	대신증권2우B	13,030	130.3	9.2%	1,200	1,400	1,200	1,000	-	-	-	-	-	-	-	-	15%	1%
20	대신증권우	13,680	355.7	9.1%	1,250	1,450	1,250	1,050	-	-	-	-	-	-	-	-	18%	1%
21	메가스터디	11,520	137.3	9.1%	1,050	600	600	450	0.45	1.32	2.7	36.7	7.0	4%	6%	1.4	6%	10%
22	KB스타리츠	3,815	386.9	9.3%	353	-	-	-									-14%	7%
23	금호건설	5,610	207.3	8.9%	500	800	500	500	0.44	0.10	1.9	6.6	22.2	1%	2%	3.4	-20%	10%
24	제이알글로벌리츠	4,220	832.9	9.0%	380	366	330	-									0%	4%
25	이지스밸류리츠	4,505	231.8	9.0%	406	293	292	58									-7%	8%
26	케이탑리츠	1,071	51.5	8.9%	95	108	38	77									21%	6%
27	에스디바이오센서	11,430	1,422.8	8.7%	990	1,266	535	0									-62%	1%
28	BNK금융지주	7,180	2,312.6	8.7%	625	560	320	360	0.23	-	-	2.2	3.1	-	7%	13.7	10%	5%
29	우리금융지주	12,990	9,767.8	8.7%	1,130	900	360	700	0.31	-	-	2.4	3.3	-	9%	14.6	12%	6%
30	NH윌리츠	3,450	145.6	8.7%	300	260	-	-									1%	3%
31	신한서부티엔디리츠	3,685	206.2	8.4%	310	245	-	-									1%	12%
32	GS건설	15,510	1,327.4	8.4%	1,300	1,300	1,200	1,000	0.29	0.10	1.8	-75.0	-12.4	0%	-2%	3.5	-27%	11%
33	대신증권	14,350	728.6	8.4%	1,200	1,400	1,200	1,000	0.26	-	-	4.2	9.1	-	3%	8.1	11%	-1%
34	동아타이어	11,990	164.7	8.3%	1,000	1,000	800	500	0.43	0.91	5.6	9.9	9.1	9%	5%	1.2	6%	6%

순	기업명	주가 (원)	시총 (십억)	DIV				P/B (최근)	P/S	P/GP	P/O	P/E	OPM	ROE	F/L	상승			
				%	최근	1년전	2년전									3년전	년간	분기	
35	금호석유유	65,800	198.9	8.3%	5,450	10,050	4,250	1,550	-	-	-	-	-	-	-	-19%	2%		
36	한양증권	9,720	123.7	8.2%	800	900	750	350	0.26	-	-	3.3	4.9	-	5%	7.4	18%	4%	
37	태영건설	2,785	108.3	8.1%	225	350	325	150	0.13	0.04	0.3	0.7	0.9	5%	14%	5.8	-31%	-22%	
38	기업은행	11,800	9,409.6	8.1%	960	780	471	670	0.30	-	-	2.4	3.2	-	9%	14.1	20%	5%	
39	동부건설	6,260	143.2	8.0%	500	900	900	700	0.26	0.08	1.1	5.4	-7.3	2%	-4%	3.1	-14%	3%	
40	디씨엠	11,330	129.2	7.9%	900	900	500	500	0.54	0.63	8.7	32.7	26.4	2%	2%	1.1	-16%	-3%	
41	에스에이엠티	2,900	290.0	7.9%	230	200	150	140	0.79	0.14	3.1	5.1	8.3	3%	10%	1.9	8%	8%	
42	JB금융지주	10,490	2,066.4	8.0%	835	599	374	300	0.42	-	-	2.5	3.4	-	12%	12.1	33%	5%	
43	이리츠코크렙	4,965	314.5	8.0%	395	414	354	350									-5%	-1%	
44	S-Oil	69,800	7,858.3	7.9%	5,500	3,800	0	200	0.88	0.20	4.9	8.7	17.0	2%	5%	2.4	-16%	-12%	
45	부국증권우	19,680	59.0	7.9%	1,550	1,650	1,250	1,250	-	-	-	-	-	-	-	-	9%	2%	
46	롯데리츠	3,205	778.7	7.9%	252	322	294	247										-20%	-2%
47	하나금융지주	43,000	12,571.3	7.8%	3,350	3,100	1,850	2,100	0.32	-	-	2.4	3.3	-	10%	14.9	2%	1%	
48	DGB금융지주	8,380	1,417.4	7.8%	650	630	390	410	0.23	-	-	2.3	3.3	-	7%	14.2	20%	6%	
49	넥스틸	7,790	202.6	7.7%	603	112	0	0										-	-14%
50	삼성카드	32,450	3,759.6	7.7%	2,500	2,300	1,800	1,600	0.47	-	-	4.7	6.3	-	7%	3.7	10%	7%	
51	쌍용C&E	5,710	2,847.6	7.7%	440	440	440	420	1.81	1.32	6.8	13.2	28.7	10%	6%	2.4	-1%	4%	
52	화천기공	32,750	72.1	7.6%	2,500	1,000	750	1,250	0.21	0.29	1.7	7.1	1.8	4%	12%	1.3	7%	-1%	
53	NH투자증권우	9,890	186.6	7.6%	750	1,100	750	550	-	-	-	-	-	-	-	-	13%	1%	
54	씨앤티스	3,480	94.9	7.5%	260	420	0	0	0.58	0.90	2.7	10.6	15.3	8%	4%	1.1	-21%	-8%	
55	서호전기	20,050	103.3	7.5%	1,500	1,000	1,000	1,200	1.12	1.62	3.6	7.4	6.6	22%	17%	1.2	13%	5%	
56	한국셀석유	242,500	315.3	7.4%	18,000	19,000	14,000	16,000	2.61	1.01	3.4	8.5	10.1	12%	26%	1.4	4%	6%	
57	코람코리아이프인프라리츠	5,040	446.2	7.4%	375	491	292	-	-	-	-	-	-	-	-	-	-6%	-8%	
58	한국토지신탁	1,215	306.8	7.4%	90	100	90	110	0.32	-	-	9.3	-12.3	-	-3%	1.8	-7%	1%	
59	ESR켄달스퀘어리츠	3,660	779.9	7.4%	271	265	131	-										-8%	-3%
60	신원	1,373	140.9	7.3%	100	50	0	0	0.61	0.16	0.6	5.7	17.2	3%	4%	2.5	-11%	11%	
61	삼성화재우	188,200	600.7	7.3%	13,805	12,005	8,805	8,505	-	-	-	-	-	-	-	-	23%	0%	
62	SK리츠	3,885	1,049.5	7.3%	284	267	51	-										-29%	-8%
63	HD현대	64,200	5,071.4	7.2%	4,600	5,550	3,700	3,700	0.68	0.08	1.0	2.2	11.5	4%	6%	3.0	12%	-3%	
64	정상제이엘에스	7,320	114.8	7.2%	530	530	430	430	1.40	1.01	4.5	6.8	8.3	15%	17%	1.3	3%	1%	
65	이크레더블	14,630	176.2	7.1%	1,040	2,720	700	740	4.10	4.18	4.2	13.2	16.0	32%	26%	1.2	-9%	3%	
66	에스코홀딩스	35,050	210.3	7.1%	2,500	2,250	2,000	1,750	0.43	0.14	1.1	5.2	7.7	3%	6%	2.2	11%	6%	
67	푸른저축은행	9,230	139.2	7.0%	650	650	550	550	0.45	-	-	3.9	4.7	-	10%	4.2	-26%	5%	
68	도이치모터스	5,080	158.4	7.1%	360	350	245	0	0.45	0.08	0.8	3.4	8.6	2%	5%	4.0	-11%	-8%	
69	GS우	36,250	64.7	7.0%	2,550	2,050	1,950	1,950	-	-	-	-	-	-	-	-	6%	2%	
70	광주신세계	31,400	249.9	7.0%	2,200	1,700	700	700	0.31	1.37	1.5	4.3	4.6	32%	7%	1.1	-2%	3%	
71	코엔텍	7,100	355.0	7.0%	500	300	510	540	2.10	4.00	7.4	8.3	9.9	48%	21%	1.2	-7%	0%	
72	빅솔론	5,860	112.7	6.8%	400	250	150	190	0.63	0.93	2.1	6.9	11.5	13%	6%	1.1	-16%	2%	
73	이지스레지던스리츠	3,785	107.3	7.0%	266	265	260	-										-3%	5%
74	세아특수강	14,430	123.7	6.9%	1,000	1,200	700	900	0.37	0.12	2.0	6.0	13.7	2%	3%	2.0	-16%	0%	

순	기업명	주가 (원)	시총 (십억)	DIV				P/B (최근)	P/S	P/GP	P/O	P/E	OPM	ROE	F/L	상승		
				%	최근	1년전	2년전									3년전	년간	분기
75	네오티스	3,600	50.2	6.9%	250	250	250	250	1.00	0.80	3.3	14.1	-52.6	6%	-2%	1.9	-22%	-5%
76	CR홀딩스	6,470	303.4	7.0%	450	450	420	400	0.60	0.39	2.6	16.3	14.7	2%	4%	2.0	-91%	-12%
77	부국증권	21,600	224.0	6.9%	1,500	1,600	1,200	1,200	0.30	-	-	3.2	4.0	-	8%	6.7	19%	0%
78	한일홀딩스	11,660	359.5	6.9%	800	514	477	430	0.24	0.16	0.8	1.7	3.6	9%	7%	1.6	8%	5%
79	한양증권우	12,350	6.5	6.9%	850	950	800	400	-	-	-	-	-	-	-	-	-4%	4%
80	한국자산신탁	3,195	396.1	6.9%	220	220	220	182	0.39	-	-	3.0	2.9	-	13%	1.4	7%	2%
81	아이마켓코리아	8,790	293.8	6.8%	600	600	600	600	0.83	0.08	1.9	5.1	19.1	2%	4%	3.1	-13%	-1%
82	NH투자증권	10,270	3,406.2	6.8%	700	1,050	700	500	0.45	-	-	5.0	7.6	-	6%	7.2	17%	0%
83	신영증권우	59,900	422.5	6.8%	4,050	4,050	4,050	2,550	-	-	-	-	-	-	-	-	4%	10%
84	코람코더윌리스	4,655	188.1	6.8%	315	268	-	-	-	-	-	-	-	-	-	-	9%	4%
85	휴스틸	5,200	292.2	6.7%	350	145	36	55	0.28	0.28	0.9	1.0	1.4	28%	20%	1.3	3%	-1%
86	유수홀딩스	5,960	155.2	6.7%	400	400	500	0	0.46	0.36	1.8	8.0	8.3	5%	6%	1.1	-7%	1%
87	신영증권	59,700	560.4	6.7%	4,000	4,000	4,000	2,500	-	-	-	-	-	-	-	-	5%	6%
88	서원인텍	6,000	111.6	6.7%	400	350	350	300	0.55	0.41	3.8	7.2	6.4	6%	9%	1.1	5%	5%
89	SK텔레콤	50,000	10,941.7	6.6%	3,320	2,660	2,000	2,000	0.95	0.63	0.6	6.5	10.3	10%	9%	2.4	5%	-4%
90	효성	68,000	1,432.8	6.6%	4,500	6,500	5,000	5,000	0.57	0.40	5.2	-41.5	-19.7	-1%	-3%	1.9	1%	10%
91	한솔제지	10,650	253.5	6.6%	700	600	700	600	0.35	0.11	0.6	3.5	11.4	3%	3%	3.0	-20%	2%
92	케이카	11,750	566.1	6.5%	760	750	867	0	-	-	-	-	-	-	-	-	2%	9%
93	삼양홀딩스우	54,200	16.5	6.5%	3,550	3,050	2,300	2,050	-	-	-	-	-	-	-	-	-2%	4%
94	한국기업평가	78,900	358.2	6.5%	5,100	3,397	2,907	8,618	3.66	3.74	3.7	15.1	18.8	25%	19%	1.3	14%	-1%
95	맵스리얼티1	4,155	385.7	6.4%	265	250	250	250	-	-	-	-	-	-	-	-	4%	5%
96	현대해상	30,800	2,753.5	6.4%	1,965	1,480	1,000	880	0.41	-	-	2.9	4.0	-	10%	6.3	5%	-5%
97	동일산업	47,200	114.5	6.4%	3,000	4,000	1,800	750	0.27	0.25	5.3	95.0	16.2	0%	2%	1.2	-75%	-9%
98	현대차증권	8,620	273.4	6.4%	550	800	675	600	0.21	-	-	3.4	4.3	-	5%	9.8	-5%	3%
99	현대차3우B	112,200	269.8	6.3%	7,050	5,050	3,050	4,050	-	-	-	-	-	-	-	-	54%	8%
100	LG유플러스	10,420	4,549.5	6.2%	650	550	450	400	0.54	0.32	0.3	4.1	6.5	8%	8%	2.3	-6%	1%
101	현대차우	112,800	2,720.0	6.3%	7,050	5,050	3,050	4,050	-	-	-	-	-	-	-	-	52%	7%
102	대덕	6,480	219.6	6.2%	400	300	300	300	0.36	0.15	0.9	1.9	79.7	8%	0%	1.2	4%	4%
103	HS애드	6,420	106.4	6.2%	400	350	300	300	0.61	0.18	0.5	4.4	6.8	4%	9%	2.7	9%	3%
104	현대차2우B	113,800	4,110.5	6.2%	7,100	5,100	3,100	4,100	-	-	-	-	-	-	-	-	54%	7%
105	NH프라임리스	3,995	74.5	6.2%	246	233	244	127	-	-	-	-	-	-	-	-	-1%	-2%
106	스톤브릿지벤처스	6,060	109.9	6.6%	400	0	137	480	-	-	-	-	-	-	-	-	34%	59%
107	피에스텍	4,055	78.5	6.2%	250	200	150	75	0.60	1.07	7.5	-39.2	24.6	-3%	2%	1.2	8%	1%
108	맥쿼리인프라	12,550	5,469.1	6.2%	772	764	743	712	-	-	-	-	-	-	-	-	14%	3%
109	KPX케미칼	44,750	216.6	6.1%	2,750	2,750	2,750	2,500	0.35	0.23	1.6	5.0	4.5	5%	8%	1.3	-12%	2%
110	하이트진로2우B	16,450	18.6	6.1%	1,000	850	800	750	-	-	-	-	-	-	-	-	-1%	9%
111	SGC에너지	28,050	404.2	6.1%	1,700	1,500	1,500	1,000	0.57	0.13	1.7	2.7	5.6	5%	10%	3.5	-9%	9%
112	HMM	22,100	15,227.8	5.4%	1,200	600	0	0	0.69	1.19	3.2	3.5	3.3	34%	21%	1.2	13%	36%
113	진양홀딩스	3,330	186.1	6.0%	200	170	170	170	0.53	0.75	5.2	31.1	9.5	2%	6%	1.5	10%	0%
114	HL홀딩스	33,350	339.1	6.0%	2,000	2,000	2,000	2,000	0.32	0.25	1.5	3.3	5.2	8%	6%	2.2	8%	-5%
115	유안타증권우	2,660	34.3	6.0%	160	230	175	0	-	-	-	-	-	-	-	-	1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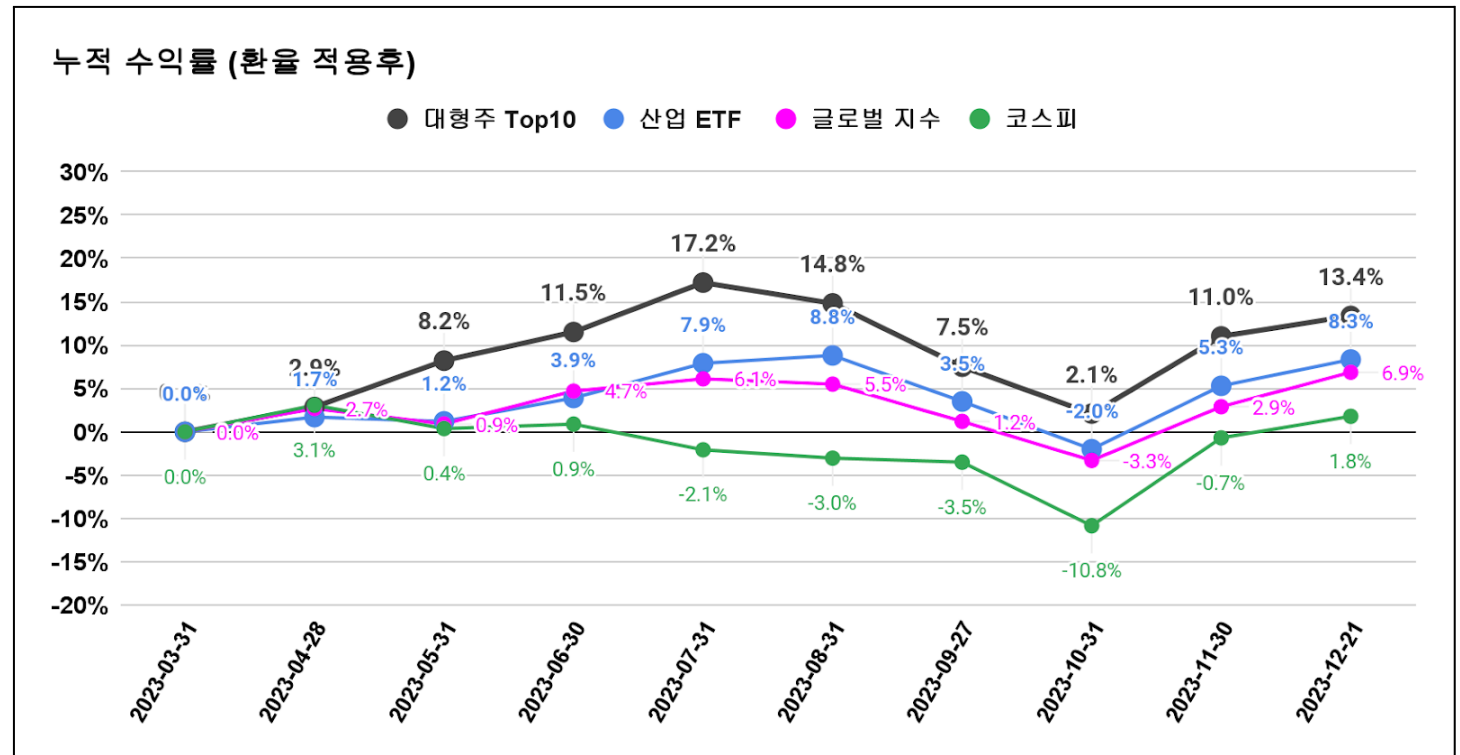
Monitoring Portfolio

OB 포트폴리오는 개편 중이므로 이번 매거진에서는 생략합니다.

※ (장기적으로) 매거진에 운영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할 지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요약

누적수익률	대형주 Top10	산업 ETF	글로벌 지수	코스피	코스피
2023-03-31	0.0%	0.0%	0.0%	0.0%	2,554
2023-04-28	2.9%	1.7%	2.7%	3.1%	2,633
2023-05-31	8.2%	1.2%	0.9%	0.4%	2,564
2023-06-30	11.5%	3.9%	4.7%	0.9%	2,577
2023-07-31	17.2%	7.9%	6.1%	-2.1%	2,502
2023-08-31	14.8%	8.8%	5.5%	-3.0%	2,477
2023-09-27	7.5%	3.5%	1.2%	-3.5%	2,465
2023-10-31	2.1%	-2.0%	-3.3%	-10.8%	2,278
2023-11-30	11.0%	5.3%	2.9%	-0.7%	2,535
2023-12-21	13.4%	8.3%	6.9%	1.8%	2,600



대형주Top10 - 월간 수익률 2.1% (누적 13.4%)

Collection 포트와 경쟁 포트(벤치마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분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음. 성과가 매우 우수했다고 합니다. 장기간 추적하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대형주 톱10과 미국의 대형주 톱10으로 구성하여, Portfolio를 운영합니다. 월말 확인하여, 톱10의 구성종목이 바뀔 경우, 종목 교체를 진행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다음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 1) 업종 내 최고 선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2) 이머징마켓(한국시장)과 선진마켓(미국시장) 투자효과
- 3) 국내 자산과 미국 자산의 자산배분 효과 (환율 상승 시, 미국 자산 매도하여 리밸런싱)
- 4) 거래비용은 Collection Portfolio와 동일

※ 대형주Top10 포트는 상품화 예정이 없으므로, 구성종목을 공유합니다. 변동사항은 월 1회 업데이트(월말) 합니다.

대형주Top10 포트 특이사항

- 2023년 11월, 지수상승의 효과를 대형주가 톡톡히 보고 있음.
 - 환율 적용 전 5.9%, 환율 적용 후 4.3% 상승함.
- 2023년 10월, 누적수익률에서 환율덕을 톡톡히 보고 있음.
 - 포트를 구성할 당시(3/31) 달러환율은 1,306원이었음.
 - 10월 31일 달러당 1,351원 임.
 - 10월 16일 장중 기준, 누적 환율효과는 2.2% 임.

2023년 11월 거래

- 국내: 변동사항 없음.
- 해외: 순위 변동으로 Unitedhealth Group(UNH) 편입, Visa(V) 제외.

<대형주Top10 포트 누적 수익률>

설정일 : 2023. 3. 31

Portfolio	날짜	합계 (환율 적용 전)				합계 (환율 적용 후)				환율영향	
		매입	현재	월간	누적	매입	현재	월간	누적	월간	누적
대형주 Top10	2023-04-28	1,000	1,016	1.6%	1.6%	1,000	1,029	2.9%	2.9%	1.2%	1.2%
대형주 Top10	2023-05-31	1,016	1,078	6.1%	7.8%	1,029	1,082	5.2%	8.2%	-0.9%	0.5%
대형주 Top10	2023-06-30	1,078	1,109	2.9%	10.9%	1,082	1,115	3.1%	11.5%	0.2%	0.7%
대형주 Top10	2023-07-31	1,109	1,188	7.1%	18.8%	1,115	1,172	5.1%	17.2%	-2.0%	-1.6%
대형주 Top10	2023-08-31	1,188	1,139	-4.1%	13.9%	1,172	1,148	-2.1%	14.8%	2.0%	0.8%
대형주 Top10	2023-09-27	1,139	1,055	-7.4%	5.5%	1,148	1,075	-6.4%	7.5%	1.0%	2.0%
대형주 Top10	2023-10-31	1,055	1,004	-4.9%	0.4%	1,075	1,021	-5.0%	2.1%	-0.1%	1.8%
대형주 Top10	2023-11-30	1,004	1,116	11.1%	11.6%	1,021	1,110	8.7%	11.0%	-2.4%	-0.6%
대형주 Top10	2023-12-21	1,116	1,135	1.7%	13.5%	1,110	1,134	2.1%	13.4%	0.4%	-0.1%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2023년 12월 21일 종가 기준>

종목명	현재가	상승률		보유			이익률		자산			
		12월	년간	편입가	편입일	환율(W)	환율x	환율o	매입	환율x	환율o	비중
삼성전자	75,000	3%	36%	64,000	3/31	-	17%	17%	50.0	58.6	58.6	5.2%
LG에너지솔루션	423,000	-7%	-3%	584,000	3/31	-	-28%	-28%	50.0	36.2	36.2	3.2%
SK하이닉스	140,500	5%	87%	88,600	3/31	-	59%	59%	50.0	79.3	79.3	7.0%
삼성바이오로직스	712,000	-2%	-13%	788,000	3/31	-	-10%	-10%	50.0	45.2	45.2	4.0%
삼성SDI	451,000	-4%	-24%	735,000	3/31	-	-39%	-39%	50.0	30.7	30.7	2.7%
LG화학	495,000	-1%	-18%	712,000	3/31	-	-30%	-30%	50.0	34.8	34.8	3.1%
현대차	198,700	8%	32%	184,500	3/31	-	8%	8%	50.0	53.8	53.8	4.8%
Naver	216,500	4%	22%	214,500	9/1	-	1%	1%	41.6	42.0	42.0	3.7%
기아	95,400	11%	61%	81,900	10/4	-	16%	16%	33.0	38.4	38.4	3.4%
POSCO홀딩스	486,500	1%	76%	368,000	3/31	-	32%	32%	50.0	66.1	66.1	5.8%
Apple Inc.	194.83	3%	56%	164.90	3/31	1,306	18%	18%	50.0	59.1	59.0	5.2%
Microsoft Corporation	370.62	-2%	55%	288.30	3/31	1,306	29%	28%	50.0	64.3	64.2	5.7%
Alphabet Inc.	139.66	2%	56%	104.00	3/31	1,306	34%	34%	50.0	67.1	67.1	5.9%
Amazon.com, Inc.	152.12	4%	77%	103.29	3/31	1,306	47%	47%	50.0	73.6	73.5	6.5%
Berkshire Hathaway Inc.	543,740.00	0%	16%	465,600.00	3/31	1,306	17%	17%	50.0	58.4	58.3	5.1%
NVIDIA Corporation	481.11	0%	236%	277.77	3/31	1,306	73%	73%	50.0	86.6	86.5	7.6%
Tesla, Inc.	247.14	1%	129%	207.46	3/31	1,306	19%	19%	50.0	59.6	59.5	5.2%
Meta Platforms, Inc.	349.28	5%	180%	211.94	3/31	1,306	65%	65%	50.0	82.4	82.3	7.3%
Lilly(Eli) & Co	570.21	-4%	56%	557.11	9/1	1,320	2%	1%	43.5	44.5	44.0	3.9%
Visa Inc.	257.11	1%	24%	256.68	12/1	1,306	0%	0%	54.0	54.1	54.0	4.8%
원/달러	1,304.9	0.5%	3.4%									

글로벌지수 - 월간 수익률 3.8% (누적 6.9%)

모니터링 및 벤치마크 목적으로, 글로벌 지수를 종합적으로 추종하는 Portfolio를 제시합니다. 글로벌 지수에 대한 ETF가 있으나, RAW data 기준으로 운영하는게 독자들에게 정보를 더 많은 전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글로벌지수 포트 누적 수익률>

설정일 : 2023. 3. 31

Portfolio	날짜	합계 (환율 적용 전)				합계 (환율 적용 후)				환율영향	
		매입	현재	월간	누적	매입	현재	월간	누적	월간	누적
글로벌 지수	2023-04-28	1,000	1,005	0.5%	0.5%	1,000	1,027	2.7%	2.7%	2.1%	2.1%
글로벌 지수	2023-05-31	1,005	1,014	0.8%	1.4%	1,027	1,009	-1.7%	0.9%	-2.6%	-0.5%
글로벌 지수	2023-06-30	1,014	1,055	4.0%	5.5%	1,009	1,047	3.8%	4.7%	-0.3%	-0.8%
글로벌 지수	2023-07-31	1,055	1,094	3.7%	9.4%	1,047	1,061	1.3%	6.1%	-2.4%	-3.3%
글로벌 지수	2023-08-31	1,094	1,063	-2.8%	6.3%	1,061	1,055	-0.6%	5.5%	2.3%	-0.8%
글로벌 지수	2023-09-27	1,063	1,012	-4.8%	1.2%	1,055	1,012	-4.1%	1.2%	0.7%	0.0%
글로벌 지수	2023-10-31	1,012	968	-4.4%	-3.2%	1,012	967	-4.4%	-3.3%	-0.1%	-0.1%
글로벌 지수	2023-11-30	968	1,052	8.7%	5.2%	967	1,029	6.4%	2.9%	-2.3%	-2.3%
글로벌 지수	2023-12-21	1,052	1,085	3.1%	8.5%	1,029	1,069	3.8%	6.9%	0.7%	-1.6%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2023년 12월 21일 종가 기준>

국가	종목명	현재가	상승률		보유			이익률		자산			
			월간	년간	편입가	편입일	환율(W)	환율x	환율o	매입	환율x	환율o	비중
한국	KOSPI	2,600	3%	17%	2,472	3/31	5.2%	-	100	105	105	9.8%	
한국	KOSDAQ	859	3%	27%	848	3/31	1.4%	-	100	101	101	9.5%	
미국	S&P500	4,698	3%	23%	4,109	3/31	14.3%	14.2%	100	114	114	10.7%	
미국	나스닥	14,778	4%	42%	12,222	3/31	1,306	20.9%	20.8%	100	121	121	11.3%
미국	러셀2000	1,983	10%	13%	1,802	3/31	1,306	10.0%	9.9%	100	110	110	10.3%
일본	니케이	33,140	-1%	29%	28,188	3/31	9.84	17.6%	8.9%	100	118	109	10.2%
중국	항셱	16,621	-2%	-17%	20,409	3/31	190.2	-18.6%	-21.8%	100	81	78	7.3%
독일	닥스	16,666	3%	18%	15,629	3/31	1,417	6.6%	7.5%	100	107	107	10.1%
유럽	유로 스톡스50	4,517	3%	17%	4,315	3/31	1,417	4.7%	5.5%	100	105	106	9.9%
인도	인도 니프티50	21,220	5%	17%	18,065	3/31	16.4	17.5%	12.3%	104	123	117	11.0%
환율	원/달러	1,304.9	0.5%	3.4%									
환율	원/엔	9.11	3.6%	-5.3%									
환율	원/위안	182.6	-0.3%	-0.2%									
환율	원/유로	1,428.2	0.8%	6.0%									
환율	원/루피	15.7	0.6%	2.8%									

산업ETF - 월간 수익률 2.9% (누적 8.3%)

투자センチ멘탈(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 ETF 를 제시합니다. 산업별 ETF를 통해, 산업별 투자 분위기를 파악하고, 관련 ETF에서 투자할 종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지수 포트 누적 수익률>

설정일 : 2023. 3. 31

Portfolio	날짜	합계 (환율 적용 전)				합계 (환율 적용 후)				환율영향	
		매입	현재	월간	누적	매입	현재	월간	누적	월간	누적
산업 ETF	2023-04-28	1,000	1,003	0.3%	0.3%	1,000	1,017	1.7%	1.7%	1.4%	1.4%
산업 ETF	2023-05-31	1,003	1,006	0.3%	0.6%	1,017	1,012	-0.5%	1.2%	-0.8%	0.6%
산업 ETF	2023-06-30	1,006	1,032	2.6%	3.2%	1,012	1,039	2.7%	3.9%	0.0%	0.7%
산업 ETF	2023-07-31	1,032	1,094	6.1%	9.4%	1,039	1,079	3.9%	7.9%	-2.2%	-1.5%
산업 ETF	2023-08-31	1,094	1,080	-1.2%	8.0%	1,079	1,088	0.8%	8.8%	2.1%	0.8%
산업 ETF	2023-09-27	1,080	1,016	-5.9%	1.6%	1,088	1,035	-4.8%	3.5%	1.1%	1.9%
산업 ETF	2023-10-31	1,016	962	-5.3%	-3.8%	1,035	980	-5.3%	-2.0%	0.1%	1.9%
산업 ETF	2023-11-30	962	1,056	9.8%	5.6%	980	1,053	7.4%	5.3%	-2.4%	-0.4%
산업 ETF	2023-12-21	1,056	1,084	2.7%	8.4%	1,053	1,083	2.9%	8.3%	0.2%	-0.1%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2023년 12월 21일 종가 기준>

코드	종목명	현재가	상승률		보유			이익률		자산			
			월간	년간	편입가	편입일	환율	환율x	환율o	매입	환율x	환율o	비중
445150	친환경선박	10,660	-3%	9%	9,950	3/31		7.1%	-	50	54	-	5%
364980	2차전지	15,390	1%	16%	17,400	3/31		-11.6%	-	50	44	-	4%
091160	반도체	35,560	2%	61%	29,130	3/31		22.1%	-	50	61	-	6%
091170	은행	6,660	3%	6%	6,225	3/31		7.0%	-	50	53	-	5%
143860	헬스케어	29,425	8%	12%	25,650	3/31		14.7%	-	50	57	-	5%
157490	소프트웨어	9,235	2%	4%	9,290	3/31		-0.6%	-	50	50	-	5%
228790	화장품	2,425	6%	4%	2,300	3/31		5.4%	-	50	53	-	5%
117680	철강	9,510	1%	22%	9,135	3/31		4.1%	-	50	52	-	5%
266370	IT	18,675	1%	29%	17,755	3/31		5.2%	-	50	53	-	5%
QQQ	기술-나스닥100 추종	403.1	3%	52%	320.9	3/31	1,306	25.6%	25.4%	50	63	63	6%
XLK	Technology	189.7	3%	54%	151.0	3/31	1,306	25.6%	25.4%	50	63	63	6%
XLV	Health Care	132.7	2%	-2%	129.5	3/31	1,306	2.5%	2.4%	50	51	51	5%
XLF	Financial	36.9	4%	8%	32.2	3/31	1,306	14.8%	14.6%	50	57	57	5%
XLP	Consumer Staples	70.2	0%	-5%	74.7	3/31	1,306	-6.1%	-6.2%	50	47	47	4%
XLY	Consumer Discretionary (사치재)	178.1	5%	39%	149.5	3/31	1,306	19.1%	19.0%	50	60	59	5%
XLI	Industrial	111.4	5%	13%	101.2	3/31	1,306	10.1%	10.0%	50	55	55	5%

코드	종목명	현재가	상승률		보유			이익률		자산			
			월간	년간	편입가	편입일	환율	환율x	환율o	매입	환율x	환율o	비중
XLE	Energy	84.4	0%	0%	82.8	3/31	1,306	1.9%	1.8%	50	51	51	5%
XLU	Utilities	62.3	0%	-12%	67.7	3/31	1,306	-8.0%	-8.1%	50	46	46	4%
XLC	Communication Services	71.9	2%	48%	58.0	3/31	1,306	24.0%	23.9%	50	62	62	6%
XLRE	Real Estate	39.2	6%	6%	37.4	3/31	1,306	5.0%	4.8%	50	52	52	5%
원/달러		1,304.9	0.5%	3.4%									

*KRX 지수 검색

분류	설명
선박	KODEX K-친환경선박액티브 (445150): - FnGuide K-친환경 선박 지수 추종 (친환경 선박과 관련도가 높은 25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2차전지	TIGER KRX2차전지K-뉴딜 (364980): -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
반도체	KODEX 반도체 (091160): - 국내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구성한 KRX 반도체 지수를 추종
은행	KODEX 은행 (091170): -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구성한 지수인 KRX 은행 지수를 추종
헬스케어	TIGER 헬스케어 (143860): -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Health Care 지수 추종
소프트웨어	TIGER 소프트웨어 (157490): - 에프앤가이드(FnGuide)가 발표하는 " FnGuide 소프트웨어 지수 "를 추종
화장품	TIGER 화장품 (228790): - WISEfn이 발표하는 " WISE 화장품 지수 "를 추종
철강	KODEX 철강 (117680): - KRX 철강 지수 추종
IT	KODEX IT (266370): - KRX 정보기술 지수 추종
기술산업	Invesco QQQ Trust (QQQ): - NASDAQ-100 지수를 추적하며, 주로 기술 기업에 집중
기술산업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 (XLK): - S&P 500 지수 내 기술 섹터 종목들을 포함
건강관리	Health Care Select Sector SPDR Fund (XLV): - S&P 500 지수 내 건강관리 섹터 종목들을 포함 - 비교 상품 : iShares U.S. Healthcare ETF (IYH)
금융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Fund (XLF): - S&P 500 지수 내 금융 섹터 종목들을 포함. - 비교 상품 : iShares U.S. Financials ETF (IYF)
필수 소비재	Consumer Staples Select Sector SPDR Fund (XLP): - S&P 500 지수 내 소비자 필수품 섹터 종목들을 포함 - 비교 상품 : iShares U.S. Consumer Goods ETF (IYK)
사치 소비재	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SPDR Fund (XLY): - S&P 500 지수 내 소비자 사치품 섹터 종목들을 포함

분류	설명
	- 비교 상품 : iShares U.S. Consumer Services ETF (IYC)
산업재	Industrial Select Sector SPDR Fund (XLI) : - S&P 500 지수 내 산업 섹터 종목들을 포함 - 비교 상품 : iShares U.S. Industrials ETF (IYJ)
에너지	Energy Select Sector SPDR Fund (XLE) : - S&P 500 지수 내 에너지 섹터 종목들을 포함 - 비교 상품 : iShares U.S. Energy ETF (IYE)
유틸리티	Utilities Select Sector SPDR Fund (XLU) : - S&P 500 지수 내 유틸리티 섹터 종목들을 포함 - 비교 상품 : iShares U.S. Utilities ETF (IDU)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Services Select Sector SPDR Fund (XLC) : - S&P 500 지수 내 통신 서비스 업계 종목들을 추종
부동산	Real Estate Select Sector SPDR Fund (XLRE) : - S&P 500 지수 내 부동산 섹터 관련주를 포함
은(Silver)	iShares Silver Trust ETF (SLV) : - 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에 기초하여 은에 직접 투자
원자재	Materials Select Sector SPDR Fund (XLB) : - 소재(Materials) 섹터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에 직접적으로 투자

Editor's Pick (첨부참조)

역량UP!!! (첨부참조)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들 돈 많이 버세요!!!

